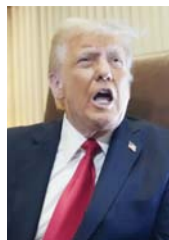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21.27	↑ 코스닥	749.67
	(-0.65)		(+6.77)
↑ 금리 (미국 9년)	2.638	↑ 환율 (원/달러)	1452.10
	(+0.003)		(+4.30)

美, 中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폭탄  
철강업계, 대책 고심  
02



대보름 준비하는 상인들

정월대보름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한 상인이 오곡밥 재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

## 美 대통령, 10월 경주APEC 방한

# 트럼프, ‘소노캠 경주’서 묵는다

현재 5성급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  
60평형 이상 초특급 숙소로 개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하는 동안 ‘소노캠 경주 리조트’에서 묵는다. 소노캠 경주는 현재 리모델링 작업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최될 경주 APEC 기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은 소노인터내셔널 산하 5성급 리조트인 ‘소노캠 경주’에 묵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은 기존 ‘소노벨 경주(3성급)’을 소노캠 경주(5성급)로 브랜드 레벨을 격상시키기 위해 리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 기한은 지난해 9월부터 APEC이 열리는 오는 10월까지이다.

앞서, 소노캠 경주는 지난 2006년 ‘대명리조트 경주’로 경주 지역에 첫 자리를 잡은 뒤, 2019년 소노벨 경주로 탈바꿈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노후화된 건물을 재단장하기 위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들을 재단장하



소노캠 경주 전경

/뉴스시

기 위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존 소노캠 경주는 ▲패밀리형 ▲스위트형 ▲실버스위트형 ▲골드스위트형의 총 471개의 객실 수로 호텔 및 리조트 사업을 전개해 왔다. 가장 상위 레벨의 고가 객실인 골드스위트형은 51평형으로 제공돼 왔다.

그러나 APEC 방한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거주하게 된 만큼, 새롭게 리뉴얼 중인 소노캠 경주에는 60평형대 이상 방 위주로 개조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북도에 따르면, APEC 관련해 각국 정상들이 묵을 객실인 PRS(Residential Royal Suite)는 안전 기준에 맞춰 60평 이상으로 선정됐다.

PRS는 APEC 같은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중요 관계자(VIP)들을 위해 준비되는 초특급 숙소로, 최상의 보안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한편,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사명을 바꿔 새롭게 개관한 뒤 계속해서 지점을 재단장 및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9년엔 소노캠 고양을 377에서 826실로 2배 이상 확장했으며 2020년에는 소노팻클럽앤리조트를, 2021년에는 소노펠리체 텔피노를 개관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에는 소노캠 비발디파크, 6월에 소노문 텔피노, 7월에 소노문 해운대를 연달아 재단장해 리뉴얼 오픈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불공정 거래·회계분식 근절 유증·공개매수 등 심사 강화”

금감원 ‘자본시장 감독 계획’  
상승 전력자 수법 DB화해 활용  
이복현 “혐의 발견시 엄정 조치”



속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과거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불공정거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력자와 수법, 이용된 주요 법인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DB화해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분식 근절을 위해 유상증자·공개매수·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2025년 자본시장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감시 대상은 사모 전환사채(CB) 약용, 신규사업을 가장한 사기, 쯤비기업 유지, 공개매수 직전 급등 폭동 등이다.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과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회계 심사를 강화하고, IPO 기업에 대한 심사·감리를 한층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시장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주요 합병, 유상증자 계획에 수차례 제동을 건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상승 전력자의 DB를 구축해 혐의 발견 시 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공사·조사·회계부서 간 협업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사익편취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공사·조사·회계 검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조사와 검사를 통합해 회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내부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유상증자와 합병·분할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3월에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예고된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美, 캐나다産 원유 관세 예고… 韓에 기회?

정유업계 공급망 다변화 ‘주목’  
SK이노·현대오일 “도입 검토”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나다산 원유의 주요 수출 경로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캐나다산 원유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정유업계도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만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원유 도입 전략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산 제품에 25%, 원유에 10%의 관세를 부과하

기로 했다. 이후 관세 적용이 30일간 유예됐지만 미국은 언제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산 원유의 아시아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산 원유가 북미 내 수요 감소로 공급에 여유가 생길 경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이를 도입한다면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캐나다산 원유 가격은 지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 배럴당 65달러에서 최근 60달러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북미 서부텍사스 원유(WTI)는 배럴당 71달러,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77달러를 기록하며 캐나다산 원유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주요 정유업계는 최근 캐나다

산 원유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업계는 유종별 시황 변동에 따라 최대 마진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1분기 미국산 원유 도입 비율은 약 20%로 예상되고 기회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도 도입 예정에 있다”라며 “미국산, 캐나다산 원유 프리미엄 변동에 따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향후 상황이 닿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또한 지난 6일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한 캐나다산 중질유가 시장에 많이 공급돼 저희 같은 중질유를 원하는 회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 메트로 한줄뉴스



▲ 홍준표 “윤석열 탄핵, 인용도 기각도 걱정… 좌우진영 승복 안 할 것”  
▲ 오세훈 “이재명, 혼자 개헌 논의 귀 막고 있어… 동참해달라” /사진 뉴스시

▲ 야 국조특위, 국정조사 기간 연장 검토… “핵심 당사자들 국조 보이콧”  
▲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 대선후보 바뀌어”… 이재명 직격

▲ 경남도, 환경부에 ‘조류독소 검출 논란’ 공동조사 건의  
▲ 이장우 시장, 추진 사업 조기 완료… 민생예산 조기 집행 지시

# 中 저가 공세에 美 25% 관세폭탄... 철강업계, 대책마련 고심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예고  
韓 철강, 미국에 연간 260만t 수출  
업계, 구체적 행정명령 발표에 촉각  
현대제철, 美에 제철소 건설 검토  
정부 "세부내용 파악 중" 긴급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철강 업계와 정부가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저가 공세, 수요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 폭탄'까지 떨어지면 업계는 3중고에 빠져 수익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을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고로에서 출선하고 있는 모습.

세를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묶어 수개월 내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한국 철강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철강 시장은 연간 1억톤에 달하며 자체 생산량은 8000만톤이다. 수입량은 2000만 톤 이상으로 한국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0만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

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현재 철강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명령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지 생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나오지만 실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강판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제철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 의사 결정이 나오면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HyREX) 기술 개발 등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 기조를 이어간다. 포스코그룹도 이달 초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현지 진출에 대해 "투자비가 많고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다양한 옵션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해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행정 명령을 기다리며 각사별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철강 업체로 일부 물량이 들어가겠지만 미국 철강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성근 기자 ysw@metroseoul.co.kr

## 엔화 연일 강세... 100엔=1000원 돌아오나

트럼프, 관세전쟁 다음타깃 'EU' 지목  
日 은행, 올해 기준금리 인상 행보에  
당분간 엔화 가치 상승세 지속될 듯

엔화가 연일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우려에 달러와 유로 가치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엔화 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올해 기준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관측도 나오면서 엔화 가치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27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956.2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가치 상승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을 관세전쟁의 다음 목표로 지목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선호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유예됐지만,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중국도 10일부터 미국 물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7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10~11일부터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를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유럽 연합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상호관세는 10~11일 발표 뒤)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지만 세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인 것

이며, 이는 다른 나라를 포함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유럽 연합을 지목하면서 유로 가치는 하락세다. 지난 7일 기준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당 0.968유로로, 트럼프 당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당시 0.919 유로와 비교해 5.33%가량 상승(유로 가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61엔에서 151.44엔으로 소폭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에서도 엔화는 G10(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엔화가 관세전쟁의 여파를 비껴간 것은 일본이 트럼프 리스크가 비교적 덜한 국가라는 분석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5년간 대(對)미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종전 8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승진 기자 asjl231@

## 서울시민, 우울감·스트레스 ↑ 흡연율·음주율 동시에 늘었다

### 2023 서울 지역사회 건강통계

지난 2년간 서울시민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모두 증가하며 정신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흡연율과 음주율도 동시에 늘면서 건강 개선 여지도 줄었다.

10일 시가 최근 발간한 '2023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우울 증상 유병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시내 1만3008가구, 2만29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만3008가구, 2만2928명 조사  
서대문·노원·강남·송파·종로 주민들 스트레스 인지율 높아  
흡연율 16.6%로 1.3%p 늘었고  
월간 음주율 55.3%→56.3%로

조사 결과 서울시민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모두 높았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3년 25.4%로 전년 24%에 비해 1.4%포인트 뛰었다. 자치구별로 서대문·노원·강남·송파·종로구 주민은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다. 이와 반대로 은평·중·마포·강동·금천구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가 적었다.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겪은 사람의 비율로 정의된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7.

3%에서 2023년 8.4%로 1.1%포인트 늘었다. 노원·송파·광진·서대문·도봉구는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이 많았고, 동대문·영등포·양천·은평·금천구는 적었다. 동 기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우울증 선별 도구(PHQ-9)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우울 증상 유병률'은 4.1%에서 4.4%로 0.3%포인트 증가했다. 노원·성북·도봉·서대문·중랑구는 우울 증상 유병률이 높았고, 양천·금천·동대문·은평·중구는 그 반대였다.

흡연율이 늘고 폭음을 하는 등 건강 행태도 악화됐다. 서울시민의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궤련)은 2022년 15.3%에서 2023년 16.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흡연율'은 전체 응답자 중 평생 권련을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담배를 매일 또는 가끔 피우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중·강서·관악·강북·중랑구는 현재 흡연율이 높은 편에 속했고, 서초·종로·강남·성동·송파구는 낮았다.

음주 행태 역시 나빠졌다.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의 경우 2022년 55.3%에서 2023년 56.3%로 1%포인트 상승했다. 월간 음주율이 높은 자치구는 서대문·송파·종로·동작·영등포구였다. 강동·관악·금천·도봉·성동구는 그 반대였다.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 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여자는 5잔(혹은 맥주 3캔) 넘게 음주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월간 폭음률'도 2022년 29.6%에서 2023년 31%로 1.4%포인트 증가했다. /김현정 기자 hjk@

## “원유 가격 경쟁력 갖추면 자연스럽게 도입”

>> 1면 '美, 캐나다산 원유...'서 계속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는 비교적 저렴한 캐나다산 원유를 적극 도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 사실상 미국이 독점해온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캐나다산 원유 수입 비중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산 원유 가격 자체

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더라도 물류비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러나 업계는 캐나다 서부에서 태평양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경로가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적게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의 통상마찰 국면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가 필요한데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유업계에서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와 캐나다산 원유 도입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고려해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원유 도입 결정은 개별 기업이 경제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캐나다산 원유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도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점검... “사고유발 요소 개선”

## 2025년 업무계획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무관용’ 대응 소비자보호조사국 신설... 현장 점검이 원장 “남은 임기 거시적담론 집중”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건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균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AI·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내부통제 및 감독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

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

해,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와 감사·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을 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 개선이 금융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기 실적 중심

의 성과평가지표(KPI) 개편과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유발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와 책임이 부합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출 관리 강화 ▲가상자산시장 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제와 발급 허용 등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6월 퇴임 예정인 이원장은 4개월여 남은 임기 중에는 금융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임기 이후 행보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업권 간담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소통하겠다”며 “당국이 가진 문제를 같이 호흡하도록 간곡히 설득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지난해 국세수입 336.5조... 예산 대비 30조 덜 걷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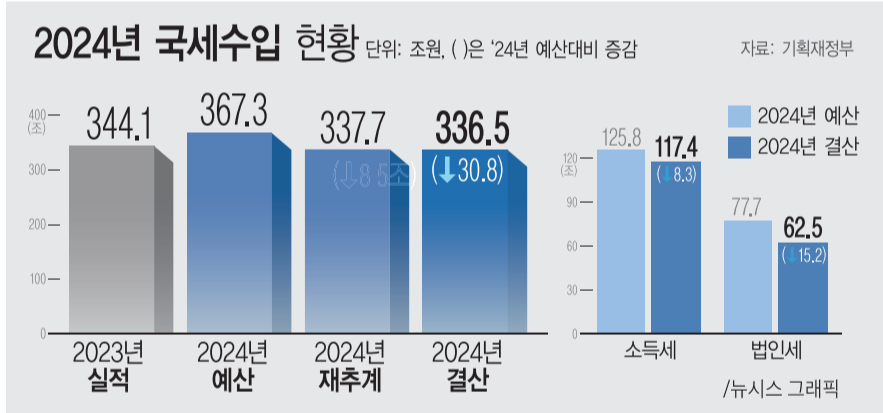
기재부, 2024 회계연도 실적 확정 총세입 535.9조, 총세출 529.5조 집계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영향

지난해 실제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에 크게 미달했다. 30조 원이나 덜 걷혔다. 재작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큰 규모의 이른바 ‘세수펄크’가 되풀이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3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세입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550조 원)보다 14조1000억 원 적었다.

총 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예산(367조3000억 원)과 비교해 30조8000억 원 덜 걷힌 규모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



규모 세수결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7조5000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 둔화를 비롯해 자산시장 부진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가 예산 대비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또 소득세(-8조3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조9000억 원), 관세(-1조9000억 원), 개별소비세(-1조5000억 원), 교육세(-7000억 원),

증권거래세(-6000억 원) 등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반면 상속증여세(6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000억 원)는 예상치를 초과했다.

각종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이자수 등 세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이 부족한 세수를 일정 부분 메웠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 원으로 예산(182조7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전년) 경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행한 총액을 뜻하는 총 세출은 529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435조4000억 원, 특별회계 지출액이 94조 원이었다. 정부가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한 정도를 뜻하는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 원이었다. 불용액은 한 해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예산현액)에서 총 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재작년(45조7000억 원)에 비해서는 불용 규모가 줄었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서울 아파트 매매 감소 상승거래 비중 36.9%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 거래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감소하면서 상승거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36.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상승거래비중은 50.3%, 52.1%, 52.5%로 3개월 연속 50%를 넘겼지만 절반 밑으로 떨어진 작년 9월(48.5%) 이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구(66.7%)와 노원구(55.7%)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축 중소형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으나 대부분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면서 하락 거래가 전체 비중을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지방에서는 하락거래 비중이 상승거래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하락거래비중은 2024년 12월 43.4%로 상승거래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 달에도 43.6%로 집계됐다.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의왕시(55.9%) 등에서 1월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가격보다 낮게 거래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과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인데 금리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이 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지원 기자 jiw13@

## “정국불안에 대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하방 위험 커져”

### KDI 2월 경제동향

“제조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이 발목”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 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

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8.3%나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지원 기자 jiw13@

# 푸드테크 승부수... F&B·로봇 기술로 미래 먹거리 공략

## ④ 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비전 미래비전총괄(부사장)이 F&B와 푸드테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부사장은 1989년생으로, 미국 테프트스쿨·다트머스대 정치학을 졸업하고 2011 한화갤러리아에 입사했다. 이후 한화건설과 한화에너지 근무를 거쳐 2023년 11월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 총괄 부사장으로 올라섰다.

그 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면 김 부사장은 식품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다. 미국 3대 버거로 불리는 '파이브가이즈'를 국내에 론칭했으며, 오픈 1년 만에 강남, 여의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분당 판교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오는 3월에는 갤러리아백화점 광고에도 오픈한다. 파이브가이즈가 2023년 6월 1호점 오픈하고 같은 해 3분기 식음료 부문 매출은 34억원, 4분기 매출은 68억원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파이브가이즈는 국내 점포 확장과 함께 글로벌 시장공략에도 나선다. 첫 해외 시장은 일본이다. 오는 하반기 첫 점포 오픈을 시작으로 향후 7년 간 도교를 포함한 일본 곳곳에 2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동선 부사장은 F&B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푸드테크를 낙점, 관련 사업 확장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부문 자회사 데이터스터블의 사명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고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를 인수했다.

스텔라피자는 피자 로봇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2인치 크기의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은 5분 남짓으로 여러 건의 주문을 연달아 수행할 수 있다. 48시간 저온 숙성한 피자 반죽을 로봇이 조리하며 전 공정을 완전 자동화한 피자 브랜드는 스텔라피자가 유일하다.

김 부사장은 향후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로봇이나 AI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의 도입 여부가 판가름할 것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을 도입



파이브가이즈, H 진출 본격화 스텔라피자 인수 등 로봇 강화 한화푸드테크 R&D센터 가동 한화로보틱스, 푸드테크 시너지

아워홈 인수전, 자금 조달 변수 갤러리아, 명품 사업 확대 가속 F&B·푸드테크 성장 전략 가동 AI·로봇 접목, 미래 먹거리 혁신

해왔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한화푸드테크 연구·개발' 센터도 오픈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통합연구·개발 센터로 ▲로봇 기술을 접목한 조리 자동화 설루션 공급 ▲신규 브랜드 론칭·메뉴 개발 등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혁신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다. 스텔라피자의 로봇 기술을 활용한 브

고 있는 만큼 사업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화푸드테크는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기술을 조리를 포함한 식음 서비스 곳곳에 활용할 계획 아래 양사 간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을 담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인력도 확보했다.

한화로보틱스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지주사 한화의 지분이 68%,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분 32%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김 부사장 산하 주력 계열사로, 한화로보틱스가 김 부사장의 푸드테크의 한 주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아워홈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되면, 업계 2위의 대규모 식자재 유통망을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F&B 사업과 결합해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인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인수 가격은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아워홈 주주인 구지는 전 부회장이 아워홈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한화비전이 투자계획이 없다고 밝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IMM크레딧솔루션 등 외부 투자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갤러리아의 본업인 백화점 사업에서는 럭셔리 강화를 통해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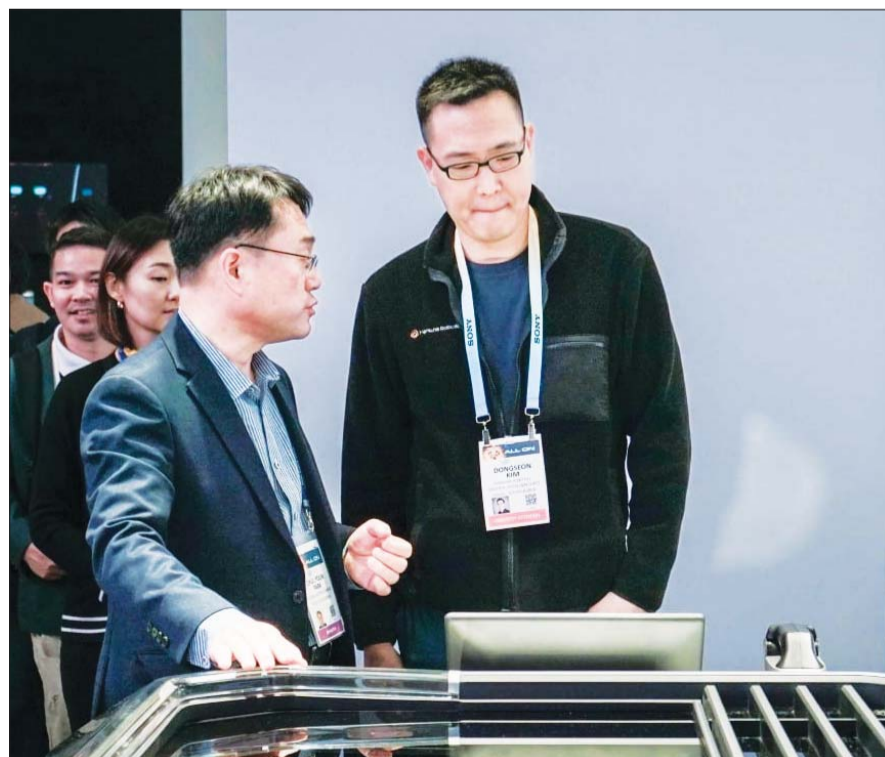
갤러리아백화점은 전체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다. 경쟁사들의 20%대 비중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현재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WEST)는 리뉴얼중이다.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 공간을 대대적으로 리뉴얼해 백화점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동선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향후 회사를 이끌 성장 동력을 발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화점, F&B, 호텔 리조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사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아 1호점인 파이브가이즈 강남에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에프지코리아



김동선 한화로보틱스 부사장(가운데)이 에너지 시스템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한화로보틱스

#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 李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

##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난 20대 대선,尹과 0.73%p 차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중도층 공약 지역화해 언급했지만 고집하진 않아 文, 같은 날 ‘포용·통합’ 강조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 하자”며 중도층 구애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상반기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나오자, 중도층을 포섭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해 보수의 구심점이 됐고, 민주 진영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으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계파 갈등, 문재인 정권과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등이 낙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등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논의하고, 여전히 야당의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기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정권을 보수 진영에 넘겨줄 때인 정치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영이 결집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는 범야권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시인들이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쟁을 일삼아 불신의 온상이 된 국회

를 바라보는 중도층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는 이 대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대표는 또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해 지원’ 사업을 언급했지만, 그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당의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내의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인터뷰가 이 대표의 대표연설 날 나온 것도 이 대표의 지지층 ‘파이 키우기’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는 당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내놓고 있다. 이 대표가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간접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원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까지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대권가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상마를 사자를 찾은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를 포용하고 통합해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된 이후에 확장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합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며 “그리고 확장된 가운데 단합함으로써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다”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나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기현·추경호 등尹 면회... ‘옥중정치’ 일조

尹 ‘비상계엄 정당 주장’ 적극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줄지어 찾고 있다.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등 ‘옥중 정치’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을 찾은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7일에 이상현·김민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중 30여 명이 면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나고, 면회 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도록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김기현 전 대표 등 인사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적극 동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조력하는 모양새에도 면회가 줄을 잇는 것은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옥중 정치’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이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는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당정, 방산 中企에 2년간 최대 50억 지원

당정협의회 후 GVC 사업 소개 “野, 방산강국 위해 악법 폐기해야”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兆 투입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활용 요청

당정이 10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기대되는 ‘K-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GV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해 수출용 제품(소재·부품) 개발, 장비도입, 컨설팅 등 중소기업별로 종합 지원하는 GVC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

템, LIG넥스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풍산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불과 석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수출 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권한 한시적 위임 방안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 퇴직시 취업 제한 완화 방안 마련 ▲방산수출을 위한 적극적 세일즈 외교 ▲공

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방산기업들이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업계 특성상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흔쾌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방산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기업 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사우디 아라비아,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관한대행 차원의 서하문 발송 ▲방사청·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 수출외교를 담당하는 현지 방문단 구성 등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 崔 대행,美 관세부와 대응방향 논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언급과 관련해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논의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언급 관련,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는 11일 발표 예정이다. 중국 등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일 정상회담 동향, 디지털분야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향 등도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고금리에 은행 연체율 '4년來 최고'... 금융권 부실 우려

4대 은행 대출 연체율 0.29%  
국민 0.05%p, 신한 0.01%p ↑  
신용대출 줄이자 연체율 급등  
총당금 적립속도 보다 더 빨라



▲2023년 0.25% ▲2024년 0.29%로 올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은 2019년 0.24%에서 2024년 0.29%로 0.05%p(포인트) 상승했고,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0.26%에서 0.27%로 0.01%p 올랐다. 하나은행은 0.19%에서 0.3%로 0.11%p 상승하고, 우리은행은 2019년과 2024년 모두 0.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제한한 상태에서 경기 불확실성이 더해진 영향이 컸다.

앞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라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였다.

특히 가계대출 개인 신용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40조 9382억원 늘어난 반면 신용대출은 3조 6719억원 감소했다.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신용대출의 공급이 제한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41%로 1년 전(0.39%)과 비교해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0.25%→0.27%로 0.02%p, 신용대출은 0.76%→0.82%로 0.06%p 올랐다.

아울러 기업대출 연체율도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0.6%로 1년 전(0.52%)과 비교해 0.08%p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이면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렸다.

가계에서 유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내수 회복이 더뎠고,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기

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줬을 때 입을 수 있는 손실을 평가한 금액이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미리 쌓아둔다는 의미다.

4대 은행의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평균은 2023년 12월 246.35%에서 지난해 9월 205.43%로 40%포인트 낮아졌다.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역대급으로 쌓았음에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되려 하락하는 이유는 그만큼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속도가 총당금 적립 속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환율과 경기 악화 등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그렇게 되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차주들의 전반적인 연체율이 오르고 있어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롯데카드 빠니보틀과 손잡고 에디션 카드 4종 선배

롯데카드가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협업을 통해 출시한 상품의 신규 디자인을 공개했다.

롯데카드는 '트립 투(Trip to) 로카 빠니보틀 에디션' 카드 4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출시했다. 전월 실적 30만원을 달성하면 해외 가맹점 2%, 국내 가맹점 1% 할인을 한도 없이 적용한다. 이번에 출시한 디자인은 ▲동남아보틀 ▲미국보틀 ▲중동보틀 등 새로운 컨셉으로 구성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 결제 건에 할인율을 추가 적용한다. 아멕스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4%, 마스터 브랜드 카드 이용 시 한도 없는 3% 할인을 마련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해외에서 더 큰 할인 혜택, 합리적인 연회비, 인기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과 협업으로 제작한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등이 카드의 차별 요소다"라고 말했다.

## 신한카드 프리미엄카드 2종 더 베스트 엑스 출시

신한카드는 10일 '더 베스트 엑스(The BEST-X)'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6년 만에 출시한 프리미엄카드다. '마이신한포인트형'과 '스카이패스형' 중 2가지로 구성했다. 마이신한포인트형은 국내외 이용금액의 1%를 적립한다.

전월 300만원 이상 이용 시 0.5%를 추가로 쌓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29만7000원이다. 해외 겸용(마스터) 30만 원이다.

스카이패스형은 국내외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월 300만원 이상 이용 시 3000원당 추가 1마일리지를 월 최대 5000마일리지까지 적립해준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 31만7000원, 해외겸용(마스터) 32만 원이다.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7만원의 캐시백도 지급한다. 연간 누적 3000만원 이용 시 7만원, 누적 6000만원 이용 시 10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백화점상품권 ▲호텔외식이용권 ▲항공 및 여행 이용권 등 리워드도 마련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건설경기 침체, 성장률 끌어내렸다... 올해도 '먹구름'

투자 감소... 성장률 0.4%p 낮춰  
건산연 "정부, 선제적 대응 필요"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까지 끌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해도 건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당초 상저하고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 달리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에도 내수 부진은 물론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투자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양호했지만 2분기에 0.5% 감소한 이후 3분기, 4분기 각각 5.7%, 5.5% 감소했다. 분기별로 건설투자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

는 각각 0.2%p(포인트), -0.1%p, -0.9%p, -0.8%p다. 이에 따라 연간으로 건설투자는 2024년 GDP성장률을 0.4%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건산연은 "작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둔화되어 4분기에는 1.2%에 그치며 연간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다"며 "지난해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전망한 수치를 하회한 것은 예상보다 건설 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과 비주거용 건축 등 건축투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줄었고, 4분기까지 침체가 이어졌다. 그간 양호했던 토목 투자 역시 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관련 지표로 보면 건설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641건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201만1000명으로 작년 5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해 3년 7개월래 최저치로 내려갔다.

건산연은 "건설경기가 평균적으로 불황기 진입 후 저점을 형성하는데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린다"며 "특히 2023년에 침체한 건축착공면적은 200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008~2009년 건축착공이 위축된 이후 2010~2012년까지 3년 연속 건설투자가 위축됐으며, 2024년에 시작된 침체는 올해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국내 기관들은 올해 건설투자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은 각각 올해

2.0%, 1.9% 성장으로 예측했다. 두 기관 모두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건축착공의 증감률을 활용해 건축투자의 저점을 예상한 결과, 올해 3분기 전후를 기점으로 경기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도 "고환율로 인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트럼프 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연기될 경우 전반적인 건축공사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침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건산연은 또 "정부는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과 하반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등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2033년까지 부·울·경 기업에 2조 이상 투입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역기업간담회 동남권 중견기업·예비중견사 대상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추진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2조원 이상, 매년 25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에 위치한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디지털·녹색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발표 및 지역기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올해부터 오는 2033년까지 9년간 동남권(부·울·경)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은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총 2500억원을 출자해 매년 5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는 매년 은행이 출자하는 500억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 2000억원 이

상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 출자분에 대해 후순위를 보장한다. 부산시가 은행출자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후순위로 보장하면 은행들은 위험기중치를 대출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의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후순위 출자로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식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중심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대출수준의 위험기중치만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가전업계, 북미 공조시장 공략 속도... '삼성·LG' 최전선 활약

## AHR EXPO 2025

삼성전자 100평 규모 부스 운영  
실외기 등 가정용 솔루션 집중

LG전자 칠러 기반 산업시장 공략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 등 소개

국내 가전업계 쌍벽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북미 냉난방공조설비(HVAC)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실외기로 유니터리(중앙 공조) 가정용 시장을 노리고 LG전자는 '칠러(Chiller)'를 통해 산업용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0~1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한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냉동공조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글로벌 업체 1800여개 이상이 참가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 ◆ 삼성전자, 가정용 유니터리 솔루션 제시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 R454B'를 선보인다. 이는 북미 가정용 유니터리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삼성전자 모델이 하이브리드 가정용 히트펌프 EHS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실내기와 호환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용이한 하이렉스 실외기를 통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공개했다. 하이렉스 실외기는 교체 시 기존 냉매 배관과 전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크기의 배관 연결이 가능해 설치 편의성이 높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50㎡(약 100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 '하이렉스(Hylex) R454B' ▲가정용 히트펌프 'EHS' ▲고효율 시스템에어컨 R32 'DVM' 라인업 등 가정용·산업용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가정용 히트펌프 EHS는 바다 난방과 급탕을 위한 솔루션이다. 공기열·전

기를 이용해 온수를 만들 수 있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이 적다. 산업용 DVM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은 친환경을 고려했다. 기존 냉매인 R410A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약 32% 수준인 R32를 적용했다.

### ◆ LG전자, 고효율 HVAC 제품 뽐내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칠러(Chiller)'를 앞세워 고효율 HVAC 시장을 공략한다. 최근 칠러 상품은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형 건물 등의 열 관리가 중요해지자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



LG전자 모델이 인버터 히트펌프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에 설치된다.

LG전자는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글로벌 톱티어 종합 공조 업체를 목표로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 솔루션을 제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소개했다.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

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해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높였다.

칠러뿐만 아니라 난방 라인업도 선보였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이다.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유니터리 방식의 주거용 난방 솔루션으로 현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한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에서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엔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 운영

###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 운영사 선정 "에너지 순환 사업모델 안정적 구축"

LG에너지솔루션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단지의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 운영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되는 국내 모든 해상풍력단지의 운영을 맡게 됐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로서 서울 여의도 면적(2.9km<sup>2</sup>)의 두 배에 달하는 해상 면적 5.5km<sup>2</sup>에 5.56MW 풍

력 터빈 18기를 운영한다. 연 평균 23만 4913MWh의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림해상풍력단지의 발전량을 예측하고, 하루 전 및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입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한국전력거래소의 입찰 제도에 참여해 전력 거래가 이뤄져 재생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소처럼 입찰 제도를 도입해 급전자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단독형 ESS를 구축해 가상발전소(VPP)를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뛰어난 재생에너지 운영 능력으로 낮은 발전량 예측 오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림해상풍력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수행 실적, 예측 정확도, 서비스 품질 및 사업 운영 능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운영사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 황원필 EaaS 사업 담당은 "LG에너지솔루션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서 압도적 1위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배터리 제조를 넘어 에너지 순환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지난 6일 유창이앤씨 천안 공장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유창이앤씨의 업무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우제 유창이앤씨 대표, 유창 조용선 회장,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오치오 B2B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 삼성전자, AI 스마트 모듈러 건축시장 공략

유창이앤씨 MOU... 상품개발 등 협력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모듈러 건축물 제작 전문 회사인 유창이앤씨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듈러 건축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유창이앤씨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공지능(AI) 스마트 모듈러 건축 상품 개발과 시장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창이앤씨는 2003년 국내 최초로 모듈러 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거, 교육, 업무, 군사 시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듈러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공간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싱스 프로'와 시스템 에어컨·사이니지·냉장고·세탁기 등 AI가전, 약 4200종의 스마트싱스 연동 기기를 유창이앤씨의 다양한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에어컨과 공기 청정기 등 AI가

전은 물론, 온도·동작 센서, 도어, 스마트 플러그, 조명, 공조 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와 시스템을 연결해 통합 관리·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CES 2025에서 발표한 '홈 AI' 비전을 모듈러 건축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홈 AI' 비전은 거주하는 집을 넘어서 이동수단,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에서도 내 집 같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홈에서의 경험을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를 집에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미래형 친환경 주거 형태 '넷 제로 홈' 관련 협업을 확대해 모듈러 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AI 솔루션과 유창이앤씨의 기술력이 만나 고객이 더욱 다양한 모듈러 공간에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누릴 것"이라며 "AI 기반의 모듈러 공간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 한화정밀기계, '한화세미텍' 새출발... 김동선 부사장 합류

(한화그룹)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 도약

한화정밀기계가 사명을 한화세미텍으로 변경하고 반도체 장비 전문회사로 도약을 선언했다. 김동선 한화그룹 부사장(사진)도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해 차세대 기술 시장 개척을 주도하기로 했다.

한화정밀기계는 미래 비전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명을 한화세미텍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화세미텍은 반도체와 기술을 더한 합



성이다. 첨단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종합반도체 제조설루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화세미텍은 40년 가까이 표면실장 기술(SMT·Surface Mount Technology) 장비, 반도체 후공정 장비, 공작기계 등 첨단기술을 선보인 제조 설루션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반도체 전공정 사업을 인수하고 영역을 확대했다. 최

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인 후공정 장비 TC(Thermal Compression) 본더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비전총괄로 합류한 김 부사장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과 의지를 새 이름에 담았다"며 "끊임없는 R&D 투자를 통해 이뤄낸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네카오, 자체 AI서 '투트랙'으로... 외부 LLM 본격 도입

(네이버·카카오)

(거대언어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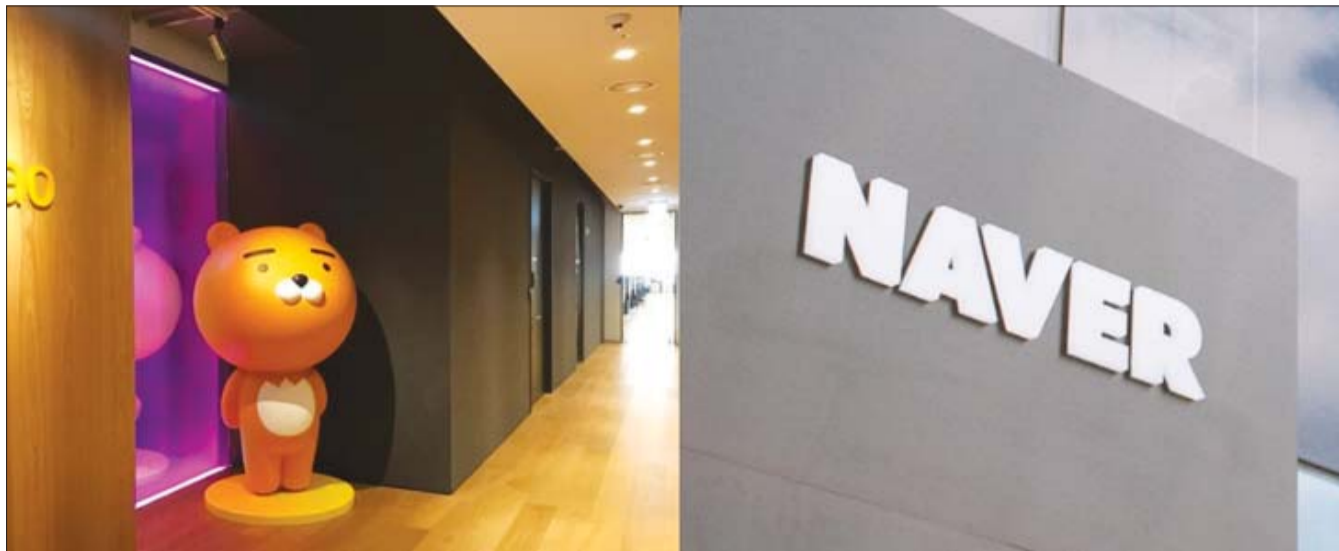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투트랙 행보  
카카오, AI 오케스트레이션 본격화  
'서비스 고도화', B2B·B2C 맞춤형 적용  
IT업계 "독자 AI 동력 약화" 지적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인공지능(AI) 기술만을 사용하는 데서 타사 거대언어모델(LLM)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기술 선도적인 외부 LLM을 이식함으로써 사업 또는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잇따라 자체 LLM만을 고집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LLM을 함께 사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는 '카나나' 두 LLM을 자체적으로 각자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네이버는 지난 7일 네이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를 통해 AI 전략을 수정했다고 밝히면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행동 정상회의에는 글로벌 AI 기업 수장들이 한 데 모이는 만큼, 관계자들과 만나 AI사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의 이미지. 2022년 챗GPT 공개 이후 불었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붐에서 자체 LLM 개발에 집중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 LLM과 함께 외부 LLM을 이식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뉴시스

최수연 대표는 지난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빅테크 LLM 등 외부 다양한 LLM과 협업 가능성을 열어뒀다"면서 "아직 서비스 제공에 타사 LLM을 활용한 사례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외부 LLM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 무제한적으로 AI 성능을 확장하는 반면,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 서비스에 최적화된 모델 능력과 속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IT 업계에서는 최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이

퍼클로바X는 네이버가 최근 이어가는 네이버 서비스 간의 연계에 활용하고 외부 LLM은 서비스 내부에서 고도화하는 데에 활용되는 방안과, B2B 사업 등 폐쇄형 모델이 필요한 영역과 B2C 사업 등 빠른 변화 대처가 필요한 영역으로 나눠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나나에 오픈AI의 챗GPT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정신아카카오 대표는 키노트 발표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오픈AI와 협력해 혁신적 고객경험을 제공

함으로써 AI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제휴 배경을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나나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오픈AI의 최신 AI 기술 API를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네이티브 컴퍼니(AI native company)'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챗GPT 엔터프라이즈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카나나는 일대일 대화뿐 아니라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관계 형성 및 강화를 돕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다. 오픈AI의 기술로 이를 더욱 고도화하여 이용

자에게 최고 수준의 AI 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카카오는 일찌감치 외부 LLM을 활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는 글로벌 빅테크 LLM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조직을 별도로 조직한 바 있다.

카카오의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카카오의 AI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차일피일 출시를 미루던 자체 LLM '코GPT'를 내려놓고 아예 재시작을 선언했다.

정신아 대표도 "지금언어모델 싸움에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의미있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임이 됐다. 카카오는 우리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AI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외부 LLM을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비추기도 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AI 주권을 뜻하는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며 "외부 LLM 활용을 통한 투트랙 전략이 자체 LLM 개발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배민·쿠팡 '배달 전쟁'... 무료배달·구독으로 격차 좁힌다

쿠팡, '무료 배달' MAU 1000만 돌파  
배민,구독 락인 전략으로 방어전 돌입  
배민 '수수료 개편', 쿠팡이츠 '공세 지속'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양강 체제로 굳어지는 가운데, 두 업체가 배달을 넘어 테이블오더와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전선을 넓히며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무료 배달' 전략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과 연계해 로켓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주문 횟수나 금액, 거리 제한 없이 배달비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이용자



GPT로 생성한 '배달 앱 업계가 시장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담은 AI 이미지.

(MAU)는 지난 1월 기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아이지아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쿠팡이츠의 MAU는 1002만명으로, 직전 달(963만

명)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 MAU는 2261만명으로 직전 달보다 18만명 증가했지만, 쿠팡이츠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업계 1위 자리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최근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용자 락인(lock-in) 전략으로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배민클럽은 월 3990원의 구독료를 내면 알뜰배달비 무료, 한집배달비 할인, 추가 거리 배달비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1990원에 이용 가능하지만, 지난해 8월 무료로 제공하던 배민클럽을 유료화한 이후 이용자가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

온다.

◆점유율 방어 위한 '수수료 개편·테이블오더' 경쟁

배달의민족은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울트라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오는 26일부터 '상생요금제'를 도입한다.

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면 업주가 원하는 특정 지역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게를 노출해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하지만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이 다수의 깃발을 꽂아 독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이에 배민은 '상생요금제'를 도입해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



KT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례 서비스 '우리펫상조' 제휴상품을 출시했다.

KT

반려동물 '우리 펫상조'

전국 8개 장묘 시설, 장례 서비스 제공

KT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우리펫상조' 제휴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펫상조는 펫 상조 전문회사인 '우리마인즈'와 제휴해 기존 펫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자를 지원한다. 국내 최대 지점을 보유한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를 포함한 전국 8개 장묘 시설을 통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펫상조 라이트(월 1만9800원/24개월) ▲우리펫상조 베이직(월 2만2000원/36개월) ▲우리펫상조 평생(월 2만2000원/36개월) 3종으로 구성된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옵션을 도입했다. 개물림 사고 배상보험과 반려견 장례 미생물 검사 서비스(베이직 상품 한정)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까지 지원한다.

KT는 패스(PASS) 앱 내 '펫쿵' 메뉴와 KT의 '아껴드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세븐모바일, AI 상담사 '티파니' 도입

부정가입 차단·민원 52% 감소

SK세븐모바일이 인공지능(AI) 상담사 '티파니'를 도입해 알뜰폰 부정가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관련 민원이 52% 감소했다. SK텔레콤의 알뜰폰 브랜드 'SK세븐모바일'이 업계 최초로 AI 상담사를 도입해 부정가입 방지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셀프 개통 증가로 알뜰폰 업계에서 부정 가입 문제가 증가함

에 따라, SK세븐모바일은 2023년부터 모든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확대 시행했다.

초기에는 고객보호실 상담사 1명이 하루 30~50건의 해피콜을 수행했으나 2023년 5월 AI 상담사 '티파니'를 시범 도입 후 티파니가 하루 최대 1200콜의 해피콜을 처리하고 있다. 상담사 12명의 업무량을 대체한 것으로, 연간 약 6억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NHN 클라우드 기술 인증 자격증' 선배

전문성·기술력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

NHN클라우드가 'NHN 클라우드 기술 인증 자격증'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NHN 클라우드 자격증은 개인의 클라우드 및 NHN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증하는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에 등록되어 있어 공신력을 갖췄으며 취업 및 경력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 ▲NHN 클라우드 예

센셜(CES) ▲NHN 클라우드 아키텍트-어쏘시에이트(CAA) ▲NHN 클라우드 아키텍트-프로페셔널(CAP) 순으로 단계별 취득이 가능하다.

NHN 클라우드가 가장 먼저 공개한 NHN 클라우드 에센셜(CES)은 클라우드 및 NHN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 지식 수준과 역량을 인증하는 자격증이다. 작년 12월 16일 첫 시험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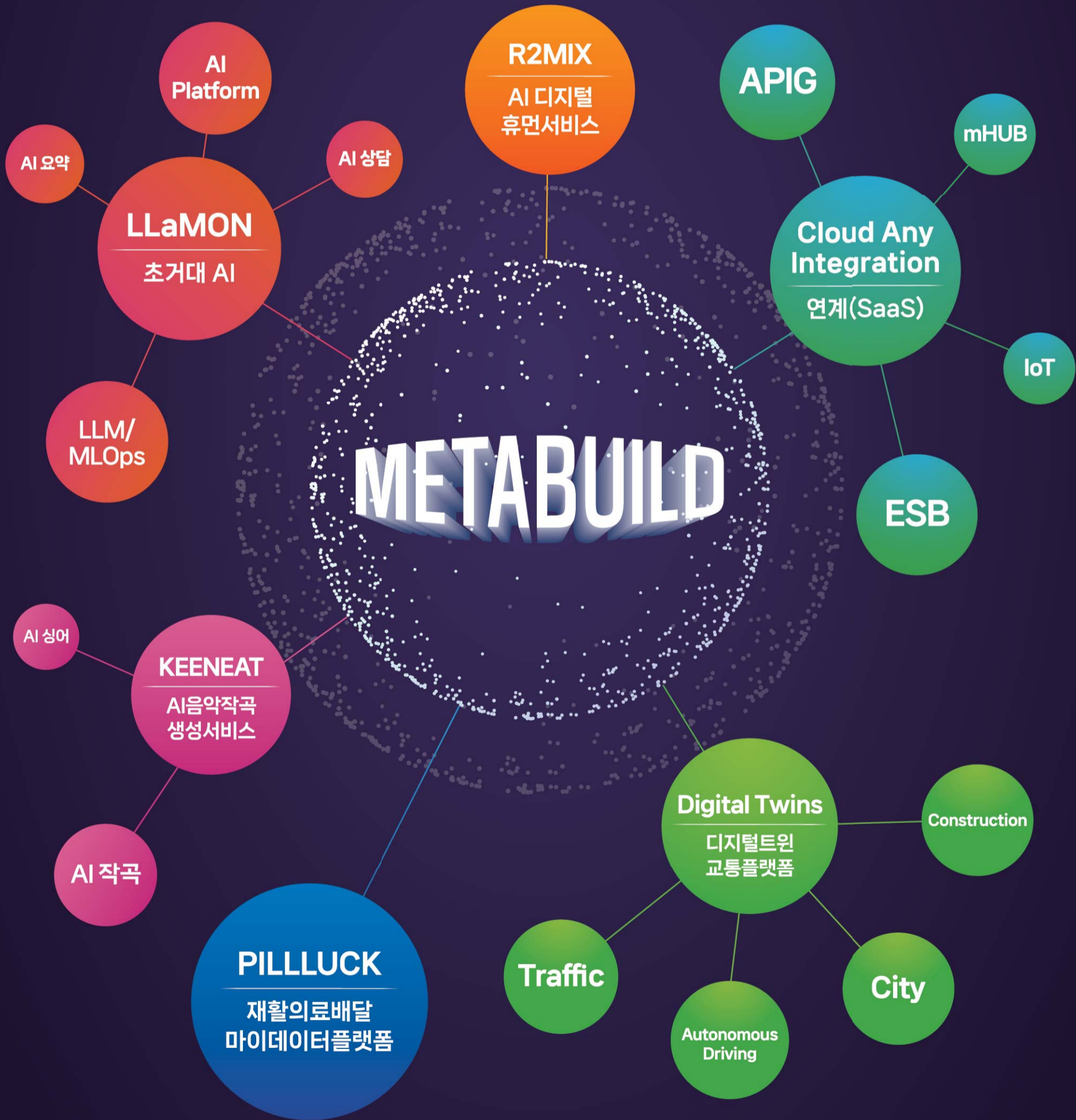
/김서현 기자 seoh@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 삼성전자, 이달 주가 9% 급등

5만5600원... 전거래일비 3.54% ↑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연장에  
기관·外人, 1589억·436억 순매수  
1분기, 실적 저점 전망에 투심 자극

삼성전자의 주가가 10일 장중 4%대 상승하는 등 이달들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역대급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류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4% 상승한 5만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던 지난 3일 이후 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4일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9.02% 급등했다. 다만 지난 7일 검찰은 부당합병·회계부정의혹으로 기소됐던 이 회장에 대해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0월 7일(현지시각)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에 상고했다. 사법 리스크다 다시 연장된 셈이다. 하지만 소식이 전해진 뒤인 10일에도 삼성전자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각각 1589억, 436억원 순매수하며 주가를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지

지를 받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들어 7일까지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4362억원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다. 동일 기간 2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은 현대차로 순매수 금액은 3374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삼성전자에 대한 ‘빚투(빚내

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잔고 금액은 94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약 1조원을 달성한 이후 최고치다. 연초 8975억원 대비로는 5.36% (481억원) 불어났다.

올해 1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저점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투심이 자극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해 기술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스타게이트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돌파구가 열린 모습이다. 스타게이트는 향후 4년간 5000억달러(730조원·연평균 182조원)를 투자하는 미국의 대규모 AI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그룹, 오픈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약 1000억달러(144조원)를 출자한다.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에서 3차 회동을 진행했다. 시장에서는 저비용 AI 모델인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의 등장으로 인해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동시에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타게이트 전략 파트너로서의 최대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딥시크와 관련해서도 김 연구원은 “딥시크의 등장은 시장 우려와 달리 오히려 AI 산업에 긍정적이다. 딥시크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기회로 판단된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설비를 확보한 삼성전자는 고객 요구에 따른 맞춤형 AI칩과 메모리 적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올해 신규 상장사 8곳 중 7곳, 공모가 하회

상장 첫날부터 30% 넘게 급락하기도  
‘대주주’ LG CNS도 부진... 시장 충격  
전체증시 침체, 고평가 논란 등 영향

올들어 신규 상장 기업들의 부진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이달 말까지 모티브링크, 엘케이캡, 위너스, 더즌, 심플랫폼, 티엑스알로보틱스, 대진첨단소재, 엠디바이스 등 9개 기업이 일반 청약 앞뒤로 있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한 8개 기업(스팩 제외) 중 7개사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특히 데이웬컴퍼니(-40.00%), 아이지넷(-37.79%), 와이즈넷(-36.47%) 등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30% 넘게 급락했다. 반면, 유일하게 상장 당일 공모가를 상회한 종목은 아스테라시스로, 공모가 대비 44.35% 상승했다.

대형 IPO도 예외는 아니었다. LG에너지솔루션 이후 최대 기대주로 꼽혔던

LG씨엔에스(LG CNS) 역시 지난 5일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9.85% 낮은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액 최상단에 공모가를 확정, 일반청약에서는 21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으는 등 관심을 끌었으나 정작 상장 후 주가는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상장 이후에도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데이웬컴퍼니는 상장 후 이날까지 43%가량 하락했으며, 미트박스(-42.16%), 아이지넷(-34.71%), LG씨엔에스(-10.02%) 등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모가를 방어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LG씨엔에스의 부진은 공모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과거에는 공모주가 상장 초반 급등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도 공모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증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관사와 발행사의 높은 공모가 희망밴드 산정, 기관 투자자의 단기차익을 노린 수요예측 참여 등으로 공모가가 ‘뺨뿍기’되면서 시장가와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지난달 IPO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기관 투자자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올해 IPO 시장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PO 종목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전체 증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는 점, 그리고 공모가가 고평가됐을 가능성”이라며 “현재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나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낮아 상반기 내 IPO 시장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



(현지시간) 지난 3~4일 미국 페어몬트 하와이 호텔에서 열린 ‘미래에셋 ETF Rally 2025’에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과 글로벌 ETF 임직원들이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 박현주 “시장혁신 이끌 상품 만들어야”

(미래에셋그룹 회장)

美서 ‘ETF 랠리 2025’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지시간 3~4일에 걸쳐 미국 페어몬트 하와이 호텔에서 ‘ETF 랠리(Rally) 2025’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ETF 랠리’는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주요 임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2024년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 총 순자산은 202조원에 달한다. 이번 ETF Rally에는 해외법인 CEO와 운용, 상품, 마케팅 등 ETF 주요 임직원 약 80명이 참석해 법인별 2025년 전략을 소개하고, ETF 비즈니스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전략가(GSO) 박현주 회장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 이른바

‘킬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기존에는 없던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글로벌 엑스’와 AI 법인 ‘웰스스팟’이 협업한 그룹의 첫 AI 기반 상품 ‘Global X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코퍼레이트 본드 액티브(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Active)’가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또 자국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선보일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및 마켓 메이킹 회사인 ‘GHCO’와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별 AI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미래 플랫폼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허정음 기자 zekova@

## NH투자증권, PB팀장 대상 리더십 세미나

위기극복 위한 ‘팀장 리더십’ 강조

NH투자증권이 NH투자증권 PB팀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윤병운 사장, 이재경 리테일 총괄부본부사장을 비롯한 130여명의 PB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제2기 트럼프 시대의 시작’ 등 변동성이 커진 국내외 시장상황에서 영업현장의 차세대 리더인 PB팀장들과 회사의 경영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인 성과 견인

의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운 사장은 PB팀장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영업 환경 지원 약속 등 성과 향상을 독려했다.

세미나에서는 조용민 언바인드랩 대표의 ‘성과를 만드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강연도 진행했다. 조 대표는 “AI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시대에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팀원 스스로 솔루션을 찾도록 도와주는 팀장의 리더십이 높은 성과와 팀의 성장을 돕는 열쇠”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팀장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조선, 엔터, 로봇업종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PB팀장들과 가진 ‘PB팀장 리더십 세미나’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과의 회의시간도 가졌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국내외 시장환경이 어려워졌지만, 영업현장의 중간 리더인 PB팀장들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음 기자

##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금액 ‘26조6790억’

전년비 건수 3.5% ↓, 금액 6.6% ↑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6%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규모는 총 1062건, 26조6790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3.5% 감소하고 금액은 6.6% 증가했다.

/원관희 기자

# 작년 中企규제 2200건 뜯어고쳤다... 개선 성과 76% 늘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리사 식품위생 교육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 직면 33건 민생규제 개선 택시기사 차고지박 교대 금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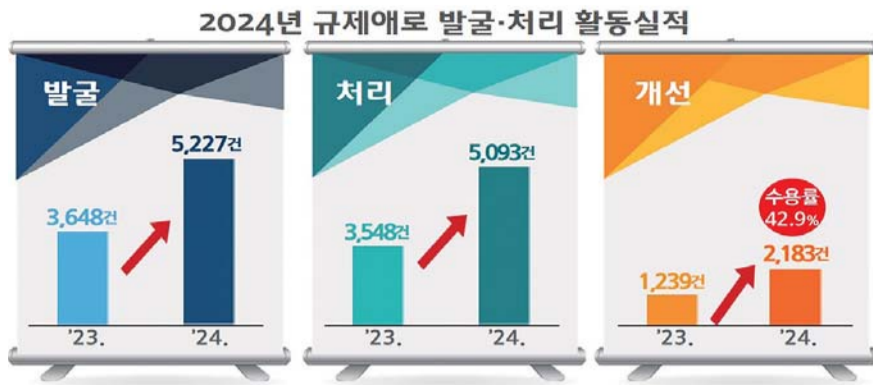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올린 규제개선 성과 건수가 전년도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재 옴부즈만은 “25년에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발굴한 기업 규제애로 건수가 5100여 건, 개선한 건수(일부 수용 포함)가 2200여 건에 각각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발굴 건수는 1600여 건(43.3%p ↑), 처리 건수는 1500여 건(43.5%p ↑), 개선 건수는 900여 건(76.2%p) 각각 늘어난 수치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



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1월10일), 국무회의(1월21일), 국회(1월31일)에 각각 보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개선 ▲입지·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개선 등에 집중했다.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운전자의 차고지 박 근무교대 금지 규제를 전면 폐지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공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도 일괄 정비했다.

▲1일 5~10톤 미만을 사료·퇴비화하는 중·소규모 축산농가 현실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

담 경감 ▲직접생산 확인(중소기업간 경쟁제품)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하면 개별기능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 ▲중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 KC안전기준 마련해 혁신기업 지원 등의 성과도 거뒀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 협업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도 각각 이루어졌다.

최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사석위호’ 정신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진공

### 3년형 내일채움공제 출시 세제지원 등 혜택은 동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새로 내놨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최소 ‘1224만원+α(운용수익금)’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고 장기재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현대위아 “협력사와 상생... 모빌리티시장 적극 대응”

## ‘파트너십 데이’ 협력사 122곳 참여 열관리시스템 등 기술강화 방안 공개

현대위아가 협력사 지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협력사 성장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지난 7~8일 제주도 서귀포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2025년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하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와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10일 밝혔다.

파트너십 데이는 현대위아가 주요 협력사와 함께 경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번 파트너십 데이에는 총 122곳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경영 비전 발표에서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 기술 경쟁력 강화



현대위아 정재욱 사장이 지난 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2025년 파트너십 데이’에서 현대위아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방안을 공개했다. 현대위아는 우선 올해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전기차용 공조 모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모듈은 기아의 PV5에 탑재 예정이다.

현대위아는 이후 배터리 및 모터 열

관리 모듈과 공조 모듈을 더한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등속조인트와 4륜 구동 부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완성차 대상 영업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현대위아는 품질과 수익성 강화 방

안도 밝혔다. 품질의 경우 선행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며 모든 제품의 단계별 수익을 검토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협력사가 신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동반성장 펀드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린 90개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협력사의 수출입 업무 지원, 안전과 보안관리도 돕기로 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으로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현대위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한샘

### 인테리어 시공프로 모집 교육·현장실습 등 진행

한샘이 홈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시공프로’를 모집한다.

10일 한샘에 따르면 시공프로는 현장에서 인테리어 상품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가다. 기존에는 시공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술자 밑에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한샘은 55년 노하우와 양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담은 자체적인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개발해 직접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상시 모집하는 시공프로는 부엌과 욕실(바스) 부문으로, 나이와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구인구직 서비스나 네이버에 ‘한샘아카데미’를 검색해 지원할 수 있다.

시공프로에 지원해 합격하면 전국에 위치한 한샘 아카데미에서 약 3주간 신입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교육은 이론, 기술, 서비스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안전교육, 공사 사용 요령, 시공 이론과 실습 교육, 고객감동 서비스 교육 등 시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후 시공 기술자를 보조하는 조수로 6개월~1년 동안 현장 경험 및 실습 교육을 받는다. 시공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시공 전문 기술자인 사수가 되고, 이후 기술을 고도화시켜 한샘의 시공 명장이 되거나 자신만의 회사를 차릴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펩리스 스타트업 30곳 선발·지원

6개사에 기술사업화 자금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펩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30곳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펩리스 스타트업은 대기업이 시도하기 힘든 혁신적 반도체 설계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기술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지난 달 공고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 중 올해 신설한 1단계 ‘Micro 초격차’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개발기-

성장기-스케일업 등 3단계로 나눠 총 30개의 유망 펩리스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한다.

개발기 단계 6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1억원과 설계 자산(IP-EDA Tool) 및 투자 유치를 위한 IR 기회 등을 제공한다. 국내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성장기 단계 20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2억원과 시제품 제작(MPW) 공정, 국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협업 기회 등이 주어진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고기술 보유 스케일업 4개사에는 기술사업화 자금 2억5000만원이 돌아간다. 반도체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 검증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품 검증 등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대동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여준구 박사

美 대통령상 등 수상 로봇 전문가

대동그룹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로봇 기업 대동로보틱스가 신임 대표이사로 항공대 총장 출신인 여준구 박사(사진)를 선임했다.

10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여준구 신임 대표는 미국 대통령상 등을 수상하고, 120편 이상의 논문과 학술연구 저서를 출판한 로봇 분야 전문가다. 2014년 세계 최대 기술학회인 전기전자공학자학회(IEEE) 종신 석학회원(Life Fellow Member)으로 선정됐다.

여대표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로봇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하와이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정보통신학



과 교수 등을 거쳤다.

작업용 자율수중로봇 연구개발로 잘 알려진 오노모터스 시스템랩(Autonomous Systems Lab) 초대소장, 미국국립과학재단본부(NSF) 정보지능 시스템 프로그램 디렉터도 역임했다.

여 신임 대표는 “대동이 보유한 자율주행 트랙터, 정밀농업 등 농업 첨단기술, 오랜 기간 축적된 글로벌 마케팅 역량에 그룹사 대동AI랩과 함께 대동로보틱스의 AI기반의(AI-enhanced) 자율로봇 기술력을 극대화해 이를 접목시켜 그룹이 AI 기반 지능형 글로벌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고용보험 증가폭 21년 來 최저치 건설·제조업 가입자 지속 감소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1517만명 전년동월대비 11.5만명 증가 그쳐 건설업 가입자도 18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은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11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34만1000명으로 고점을 찍고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 8월 22만명, 9월 19만5000명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에는 소폭

반등했으나, 11월부터 다시 증가폭이 축소되며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올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1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은 지난해 8월 1만3000명을 시작으로 ▲9월 1만5000명 ▲10월 1만5000명 ▲11월 1만7000명 ▲12월 1만7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건설업 업황 전망이 밝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반면, 섬유, 금속가공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1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0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9%(1만6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지난해 대비 1만4000명 감소한 6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지급액은 9747억원으로 3.8%(356억원)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을 비롯해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줄어든 것이 구인 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11만명대 증가가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며, 2월에 소폭 회복한다면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2035년 매출액 127조 목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

한국전력 'NEW 비전선포식'  
본사업 고도화·수익구조 다변화 등  
10년간 로드맵, 4대 전략방향 설정

한국전력이 2035년 매출액 127조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한전은 10일 한전 본사비전홀에서 '2025년 NEW 비전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로드맵을 담아 4대 전략방향을 설정하고 '2035 중장기전략'을 수립했다. 4대 전략방향은 △본사업 고도화 △수익구조 다변화 △생태계혁신 주도 △조직효율 극대화다.

이를 통해 목표 매출을 달성하고, 총 자산 규모 199조원, 해외·성장사업 매출 20조원, 총인원 2만6000명에 달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재무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전력계통의 불확실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0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 NEW 비전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그러면서 "이에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솔루션 리더'를 새 비전으로 선포하고 한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한전이 전력산업의 리더로서 전력공급의 효율과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핵심기술 개발과 사업모델을 혁신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미다. /세종=한용수 기자

# 유망 중소·중견기업 120곳 정책금융 지원

산업부 '혁신 프리미어 1000'  
대출·보증한도 확대, 금리 등 혜택  
산업정책·금융지원 간 연계 강화

정부가 올해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120곳을 선정해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산업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작년 말 정책금융지원회의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 필요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제공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금리를 최대 1.3% 포인트 감면하고, 시설자금 소요자금 한도를 기존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95%로 상향하고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도 확대한다.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평가시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 공고 관련 상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올해 상반기 중 선정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전기차 충전시설 '중대 위법' 곳곳 적발

안전관리 소홀 추정 사업장 조사  
10곳 중 1곳 실제 관리위반 드러나

전기 안전관리에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등 사업장 10곳 중 1곳에서 실제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740개소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2024년 10월 14일 ~ 11월 29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상시 안전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74개소(10%)에서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검사 미실시', '대행업무 범위 초과'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위법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에 공개한다.

적발된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중 경기와 강원 소재 2곳은 대행업무 범위를 초과해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서울·인천·부산·경기 소재 4곳은 안전관리업 등록 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 규모 자금 공급

저금리 용자 지원 사업 모집 개시  
1~2%대 최대 110억 대출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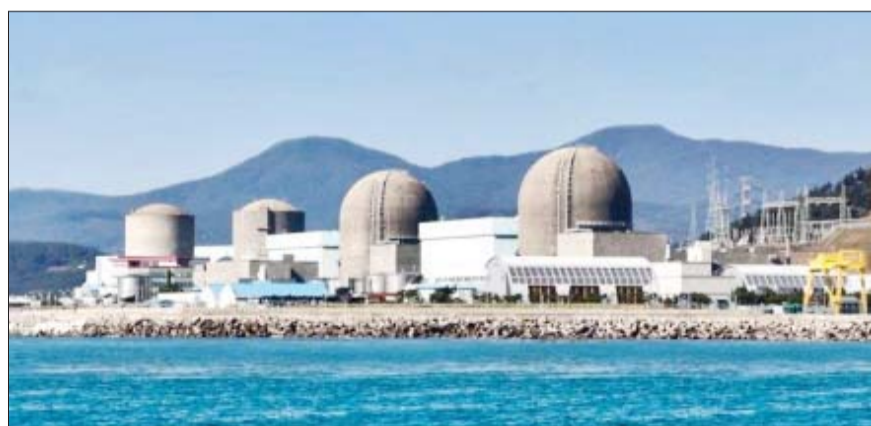
정부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AI(인공지능)발전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원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 2022년 25조4000억원, 2023년 32조1000억원으로 확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신설된 이후 69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뉴시스

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용자금이 성공적으로 지원됐고, 올해는 최근 신한올 3·4호기 건설 가속화,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등 시중 8개 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

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면역증강 동물백신 세계 최초 상용화

검역본부, 아주반트 시스템 개발  
주요 소모성 질병 면역증강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K-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이를 업체 씨티씨백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해, 수입 아주반트 대체 및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백신의 구성은 크게 항원과 아주반트로 나뉜다. 아주반트란 의학적으로 특정 약물이나 백신의 면역반응(효과) 또는 항암제 등의 치료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 추가되는 물질을 뜻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백신의 선천성 면역 유도뿐만 아니라 적응성 면역인 세포성·체액성 면역체계 강화에 있다. 백신 접종 초기는 물론 접종 이후에도 장

기간 지속되는 면역반응을 한층 더 강화해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그 결과, 구제역 및 국내 주요 소모성 질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쉐코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마이코플라즈마성 폐렴)과 어류인 연어 백신 적용 시에도 면역증강 효과가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이번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33건)과 논문 게재(12건)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말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산업체와 통상실시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현재 제품화를 진행 중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차세대 동물백신 아주반트(면역증강제) 시스템 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K-동물백신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2025년 1월 15일(수요일) 오후 3시 ~ 6시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3088-0047 / E-mail : htmallcom@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헷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헷터  
헷터그룹지주회사



브레인TV  
3천만이상 시청자 보유  
방송전문기업



대한홍삼  
국내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한삼장홍삼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헷터라이프  
업계최초 계층형 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헷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3088-0047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남도, 올해 섬·어촌에 2556억 투입... 경제활성화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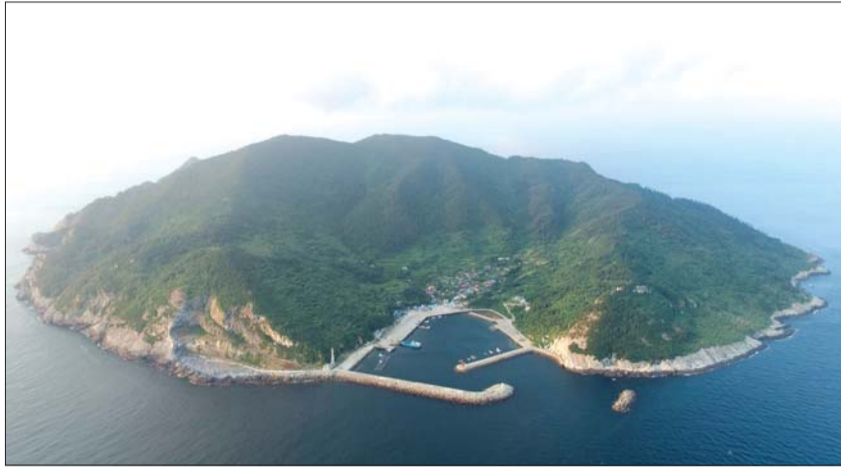
여수세계섬박람회 등 57개 사업  
공동작업장 등 섬 기반시설 확충  
신안 흑산도·여수 거문도 관광 육성

전남도가 섬과 어촌에 올해 2556억 원을 들여 정주여건 개선과 어항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섬 종합발전사업 ▲K-관광 섬 ▲어촌신활력사업 ▲어항정비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해수욕장 운영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이다.

전남도는 전국의 40%가 넘는 풍부한 어업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관광지,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42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리는 박람회가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



완도 여서도.

리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준비 중이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과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 간 210억원을 들여 매력적인 K-관광 섬으로 집중 육성한

다는 복안이다.

7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준비 중이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인 어

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299억원을 투입해 지방어항 건설과 보수·보강사업을 추진, 어업인들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양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1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성 울포 해양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키우고,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육성하고,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올해 6회째 열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남 섬과 어촌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창원시

#### 외인 근로자 자원봉사단 발대식

창원시는 9일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시 최초의 외국인 근로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봉사단 명칭인 '다원(多ONE)'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로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구성했다.

봉사단의 평균 연령은 33세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10개국 출신 단원 30명과 봉사단을 이끌 내국인 2명이 합류한 32명으로 구성됐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안동시

#### 문화관광누리집 새단장

경북 안동시는 주요 관광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누리집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문화관광누리집은 사용자 중심의 알기 쉬운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총 5개 국어로 관광 정보 및 콘텐츠를 최신화 했다.

추천 여행길, 안동 즐기기, 안동 맛보기, 안동 쉬어가기, 문화유산, 여행안내 카테고리 중심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관광택시, 실시간 버스정보, 기상정보 등을 새롭게 적용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 영암군

#### 3개 대학과 RISE 사업 협력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남 서부권 3개 대학인 세한대·동아보건대·목포과학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이 지역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암군과 3개 대학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대학을 지원·협력해 '인재 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교육청

####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

경북교육청이 2025년 국제교류 운영학교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까지 공모한다.

1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국제교류 운영학교 공모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문화 공감 능력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해 116개에 이어 올해는 120개 학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류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경북=김상복 기자

## 달성군, 中企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신기술 연구개발 성공률 제고  
기술이전료, 시제품제작 등 지원

대구시 달성군이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기업의 연구개발 기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개발 등 단계별 원스톱 종합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달성군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기획 지원사업'은 기술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은 뛰어나나 기획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분석하고, 신기술 개발의 타당성·시장성·성공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달성군은 사업 선정 기업에 연구개발 역량 진단, 기술-특허동향 및 타기

시장 등 사전기획 보고서 작성·제공, 연구개발과제 신청·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 기업·기관에는 기술이전료,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인증·시험 분석, 마케팅, 디자인, 컨설팅 등 기업·기관이 원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은 관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둔다.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술개발 활동비 등을 지원받는다.

/달성(대구)=김준한 기자 kih9@

## 광주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2700억 확보

상반기에 1900억 지급

광주시가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난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해자금 2700억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1900억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다.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

/광주=양수영 기자

## 경주시, 주요 교차로 2곳에 도시숲 조성

내년까지 2년간 60억 투입

경주시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에 나선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천북면 신당교차로와 현곡면 금장교차로에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사업비 60억원은 기금 30억원, 도비 9억원, 시비 21억원으로 구성되며, 신당교차로에 40억원, 금장교차로에 2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시는 산림청 보고·자문회의와 도시



현곡면 금장교차로 전경

## 울진군,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도입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

울진군은 2025년 1월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 농마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체류형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경영에 편리함을 줄 전망이다.

다만, 쉼터 설치에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내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CJ온스타일, 성과에 안주 말고 MLC 확실한 1등 이뤄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 이재현 CJ그룹회장 현장경영

CJ ENM 커머스부문 본사 방문 “국내 성과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주도하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 행보에 나섰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CJ ENM 커머스부문(이하 CJ온스타일) 본사를 찾아 지난해 MLC(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중심으로 거래액을 확장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뤄낸 CJ온스타일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CJ온스타일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MLC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시장 변화를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독보적 경쟁력으로 시장 선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CJ온스타일 본사에서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고 있다.

이 회장은 “모바일 중심의 신사업 모델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국내 MLC 시장에서 확실한 1등을 이뤄낼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내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까지 성장해 더 넓은 시장에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주도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사업 성과와 계획을 점검한 후 MLC 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핵심인재 등 임직원들을 만났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 등 CJ온스타일 주요 경영진과 CJ주식회사 김홍기 대표 등 지주사 경영진 일부가 참석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가운데)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CJ온스타일 본사 MLC 방송 스튜디오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CJ주식회사 이종화 포트폴리오전략2실장, 김홍기 대표, 이재현 회장, CJ ENM 커머스부문 이선영 대표. /CJ그룹

이 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사업 성과와 계획을 점검한 후 MLC 방송 스튜디오를 방문해 핵심인재 등 임직원들을 만났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이사 등 CJ온스타일 주요 경영진과 CJ주식회사 김홍기 대표 등 지주사 경영진 일부가 참석했다.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이재현 님이

젊은 직원들과 직접 악수하며 최고로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 쇼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직원들도 깊이 공감하며 환호와 박수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올해 첫 현장경영 사업장으로 CJ온스타일을 방문한 것은 역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모바일 쇼

핑 경험을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온 CJ온스타일의 성과를 격려했고 신성장동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J온스타일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모바일·TV·e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플랫폼’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지난해 CJ온스타일의 MLC 거래액이 전년 대비 96% 상승했고, 모바일 신규 입점 브랜드 수는 400여 개 증가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신년 현장경영으로 올리브영·대한통운 등 계열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들과 소통했다. 지난 9월에는 CJ대한통운 사우디 GDC를 방문하는 등 글로벌 사업 현장도 직접 둘러봤다.

CJ그룹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 방향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삼양식품, 日에 K매운맛 알린다... ‘맵’ 론칭

12~14일 슈퍼마켓트레이드쇼 참가 브랜드 부스 열고 불닭볶음면 등 소개

삼양식품이 일본 시장에 글로벌 브랜드 ‘맵(MEP)’을 론칭하며 국물라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양식품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슈퍼마켓트레이드쇼’에서 브랜드 부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력 브랜드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비롯해 불닭 스낵류, 불닭 소스와 함께 신규 국물라면 브랜드 맵, 리뉴얼된 파스타 브랜드 탱글의 신제품을 새롭게 소개한다.

맵은 삼양식품이 지난 2023년 8월 국내에서 선보인 국물라면 브랜드 ‘맵탕’



맵 후추소고기라면(왼쪽)과 마늘조개라면. /삼양식품

의 글로벌 브랜드다. 매운 라면을 찾는 다양한 상황에 주목해 매운맛을 화끈함, 칼칼함, 깔끔함, 알싸함, 은은함 등 5가지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일본 시장에서 선보이는 신제품은 ‘후추소고기라면’, ‘마늘조개라면’ 2종류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감칠맛을 강조한 대중적인 매운맛을 구현했다.

일본 라면시장은 약 7조원 규모로 국물라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불닭볶음면을 주력으로 해 온 삼양식품이 맵 론칭을 통해 현지 국물라면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작년에 론칭한 파스타 브랜드 탱글의 신제품 ‘갈릭 쉬림프 파스타’를 새롭게 선보인다. 투움바 파스타를 모티브로 부드러운 크림소스에 매콤함이 가미된 맛이 특징으로, 기존 제품 대비 단백질 및 식이섬유 함량을 강화한 건강한 건면 파스타로서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한편 ‘슈퍼마켓트레이드쇼’는 연 인원 약 8만명이 방문하는 일본 최대 식품 유통전시회로 올해는 약 2200개 식품관련 제조, 유통, 설비 관련 회사가 출전한다. /신원선 기자

## 롯데칠성음료 ‘레몬진’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가 2021년 출시 이후 약 4년 만에 과일 탄산주 ‘레몬진’ 패키지를 새 단장했다.

리뉴얼은 통레몬 그대로 침출해 진한 레몬 맛과 상큼함을 가진 레몬진의 특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새 단장한 레몬진은 레몬 모양의 배경을 노란색으로 강조하고, 레몬 그림을 추가해 통레몬을 침출한 제조 공법과 레몬의 풍미를 시각화했다. 배경의 펜 그림을 간결하게 변경하고 알코올 도수 표시를 제품 중앙에 배치해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레몬진은 통레몬 그대로 침출한 과일 탄산주로 4.5도, 7도, 9도의 다양한 알코올 도수로 출시되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1년 5월 출시 이



후 2024년 12월까지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 10월에 과당을 빼고 알코올 도수를 9도로 높인 ‘레몬진 제로나인’을 선보였다. 레몬진은 제로나인 출시로 알코올 도수 4.5도, 7도, 9도의 총 3가지 제품군을 갖추며 다양한 도수의 과일 탄산주를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 이랜드 에블린 ‘러브미모어’ 캠페인 공개

밸런타인데이 시즌 맞아 전개 분홍색 심리스 언더웨어 선보

이랜드월드의 여성 란제리 브랜드 ‘에블린’이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러브미모어’ 캠페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에블린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주제로 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사한 분홍색상의 심리스 언더웨어 제품군을 선보인다.

에블린의 심리스 언더웨어 제품군은 ▲볼륨 심리스 브라 ▲실루엣 브라 ▲올데이 브라 등으로 구성되며, 끈 없이도 자연스러운 보정력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볼륨 심리스 브라’ 라인의 대표 상품인 ‘실루엣 브라’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심리스 레이스 팬티’도 선보인다.

한편, 볼륨 심리스 브라 제품군의 대표 상품인 ‘실루엣 브라’와 ‘올데이 브라’는 각각 3cm, 1.5cm 두께의 볼륨 패드로 구성돼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성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랜드 에블린 관계자는 “밸런타인데이 시즌과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분홍색상을 메인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화사한 컬러와 편안한 착용감으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롯데온 ‘레벨업 뷰티’ 뷰티 디바이스 등 할인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뷰티 디바이스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2024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구매자 수는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롯데온 측은 설명했다.

이에 롯데온은 이달 16일까지 뷰티 디바이스와 스킨-케어 제품을 한 데 모은 ‘한 단계 더 아름다워지는 레벨업 뷰티’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LG프라엘 인텐시브 멀티케어 BLP1 고주파 마사지기 ▲마사지볼이 포함된 바나브 유포세븐 더 멀티 등이 있다. /안재선 기자

## ‘발을씻자 풋샴푸’ 쟁구 한정판 선보여

LG생활건강 ‘쟁구는 못말려’와 협업

LG생활건강은 ‘쟁구는 못말려’와 협업해 ‘발을씻자 풋샴푸’와 ‘강아지 발씻자 풋샴푸’를 쟁구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발을씻자 풋샴푸’ 쟁구 한정판은 말랑향긋 피치향, 시원달콤 민트초코향 등 2종으로 구성됐다. 각각 쟁구 엉덩이를 닦은 복숭아와 쟁구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를 표현하고 있다. 또 특히받은 체취 마스크 향료 성분이 짙은 체취를 잡아준다.

‘보송 데오 미스트’는 집 밖에서 발냄새를 급하게 없애야 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인 쟁구 아빠 신형만처럼 하루 종일 신발을 신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수면 양말처럼 신는 형태로 설계된



‘풋필링 마스크’ 쟁구 한정판에는 쟁구 잠옷의 귀여운 패턴을 디자인해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 ‘풋밤크림’은 짙은 발을 아기 발처럼 말랑말랑하게 관리해 주는 제품으로 쟁구 동생 아기 짱이를 연상시킨다.

LG생활건강이 기존 발을씻자 풋샴푸를 반려동물용으로 구현한 ‘강아지 발씻자’도 쟁구 한정판으로 출시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게임업계, 올해 '이 같았다'... 장르도 플랫폼도 '총력전'

신작 48개, 실적 반등 위한 대공세  
모바일·PC·콘솔 등 플랫폼 총출동  
AI·블록체인 신기술 접목 등 차별화  
재도약 원년... 마케팅도 전력 투구

국내 게임사들이 일제히 올해 신작을 대거 선보인다.

지난해 넥슨, 크래프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사들의 실적이 고전을 면치 못한만큼 신작을 통해 올해 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르도 다양하다. 모바일, PC 콘솔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출시가 예정돼 있다. 게임사들은 올해를 실적개선을 위한 원년으로 보고 일제히 과감한 마케팅에 나서려는 분위기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에만 약 48개 이상의 신작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존 지식재산(IP)을 재해석한 신작들이 눈에 띈다.

넥슨은 간판 IP 중 하나인 마비노기의 플랫폼을 모바일로 옮긴 '마비노기 모바일'을 내달 27일 정식 출시한다.

넷마블은 2014년 출시했던 '국민게임' 세븐나이츠를 리메이크한 '세븐나



크래프톤 인조이 이미지.

/크래프톤

이즈 리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인다.

앞서 양사 모두 "원작의 스토리를 유지 하면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개발을 한 신작"이라며 "마니아층들이 많은 게임인 만큼 새로운 이용자들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아이온2, LLL, 택탄, 타임테이커즈, 브레이크스: 언락 더 월드, 리니지M 등 6개를 준비했다. 특히 아이온 후속작인 아이온2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아이온은 공개첫주부터 앱스토어1위, PC방 점유율 160주 연속 1위

를 기록한 바 있다.

엔씨 측은 "전작 인지도가 높아 기대감이 큰 만큼 실적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펠어비스는 올해 흑자 전환 열쇠를 쥔 '붉은 사막'이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실제 붉은사막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붉은사막 출시로 2025년 펠어비스의 순이익은 1000억 원 이상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프트업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2024 지스타 현장에서 신작을 체험해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최빛나 기자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예약자는 이미 300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콘솔, AI 등 차별화된 기술력을 접목한 게임도 보인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MMORPG '레전드 오브 이마르'를 오는 20일 국내에 선보인다. 넥슨은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내달 28일 글로벌 출시하며, 크래프톤은 내달 28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인조이'를 같은 날 얼리 액세스(앞

서 해보기)로 공개한다. 특히 크래프톤은 최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와 만난 유일한 게임사 CEO인만큼 이번 인조이에 어떤 오픈AI 기술이 접목될지 이목이 쏠린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이 적었던 2023년, 2024년과 달리 올해에는 주요 게임사들이 각기 5개 이상의 신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플랫폼 신작 출시가 예정돼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동아쏘시오, 바이오·물류 호조... 흑자 성과

에스티젠바이오, CMO 성장 매출 확대  
용마로지스, 물류 확장 영업이익 38.6% ↑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주요 자회사들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뤄내면서 그룹 전체 실적을 개선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024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 1조3332억원, 영업이익 821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7.8%, 영업이익은 6.8%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동아제약은 헬스케어 전문회사로 박카스, 일반의약품, 생활건강 등 사업 부문 전반에서 성과를 거뒀다. 동아제약의 매출은 전년 대비 7.6% 증가해 6787억원이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 커진 852억원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난 사업은 일반의약품이다. 해당 사업 매출은 1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억원 늘면서 15.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박카스와 생활건강 사업 매출은 각각 2646억원, 2080억원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옥 전경. /동아쏘시오홀딩스

이다.

물류 전문회사 용마로지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올렸다. 용마로지스는 4004억원의 매출과 19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5%, 38.6% 증가한 규모다. 회사는 신규 화주 유치와 의약품 및 화장품 물류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내 신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

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전문 회사 에스티젠바이오도 매출 성과로 성장 기반을 다졌다. 매출은 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손실 64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특히 에스티젠바이오는 그룹 계열사 동아에스티의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 상업화 물량 전량을 생산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이물도사의 발매가 본격화되는 경우, 에스티젠바이오도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에서 대형 품목을 내놓게 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고객사 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물도사는 올해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발매된다.

동아에스티도 전년 대비 5.9% 증가한 640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연구개발 투자 및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일동바이오 '프로바이오틱스', 인도서 주목

'2025 비타푸드 인도' 참가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사업 회사인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국제 헬스케어 식품 박람회 '2025 비타푸드 인도(Vitafoods India)'에 참가해 기능성 소재를 세계 시장에 알렸다고 10일 밝혔다.

'2025 비타푸드 인도'는 5~7일 인

도 뭄바이에서 열렸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해외 기업들과 유관 단체 등이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자사가 보유한 기능성 소재와 더불어 4종 코팅 가공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 및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야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업체

와 파트너링 미팅을 갖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사 발굴과 사업 제휴 등을 타진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20여 종의 미국 GRAS(식품 원료로 사용해도 안전한 소재를 인증하는 미국 최상위 안전성 인증 제도) 원료와 할랄(HALAL) 및 코셔(Kosher) 인증 원료 등 글로벌 시장의 특색에 맞춘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주한미군 진료의뢰 전국 최상위권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맞춤 진료 제공"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주한미군 진료 의뢰에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기록한 주한미군 외래 환자수는 약 3만8000명이며 주한미군 산모 출생건수는 200건을 넘어섰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에는 응급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외국인 진료 분야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춰 평택 캠프프리스65의무여단, 브라이언 울곡 육군병원, 오산 미공군기지 51

의무전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에는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한 40대 미군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한 다학제적 의료 시스템과 응급환자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 해당 환자는 급성 신부전증, 당뇨병성 케토산증, 급성 췌장염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스마트 중환자실에서 음압 격리 후 즉각적인 혈당 관리와 수액 치료를 통해 의식을 회복했다.

또 국제진료센터는 RH-O형 혈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군부대를 통해 헌혈자를 확보하고,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미국 이송 준비를 지원하는 등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갔다.

/이청하 기자

##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최대 실적 경신

지난해 매출 1293억 기록

대웅바이오는 중추신경 질환용 전문 의약품 '글리아타민'이 지난해 1293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0일 밝혔다.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 성분으로 함유해 뇌 기능 개선제로 쓰인다. 해당 성분은 인지 기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을 촉진하는 기전을 갖췄다. 특히 최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인지 기능 및 신체 건강을 보존하는 치료제로 고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 인지 개선 효과를 밝힌 연구를 SCIE 급 저널에 게재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물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글리아타민'은 국내 동일 계열 의약품 중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글리아타민은 동일 계열 약물 중에서도 캡슐제, 주사제, 시럽제 등 다양한 제형으로 발매돼 환자들에게 복용 편의성과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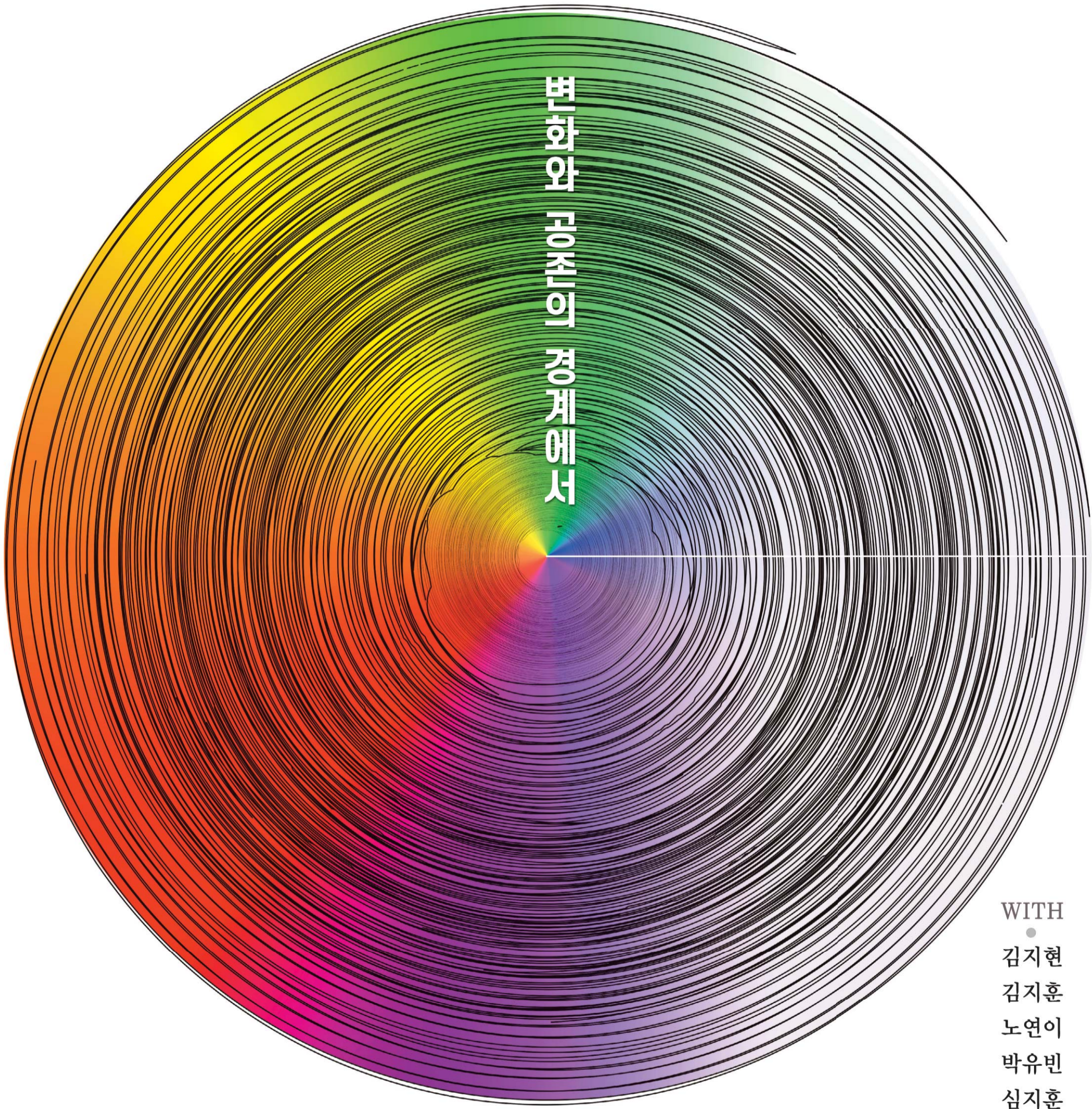
대웅바이오는 현재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뚜렷한 대안이 없는 의료 현장에서 글리아타민이 환자 삶의 질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Gallery **오름**  
기획초대전

# ESTUARY

## 에스추어리



변화와  
공존의  
경계에서

WITH  
● 김지현  
김지훈  
노연이  
박유빈  
심지훈  
오승경  
조성훈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비** **ARAMBI**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일·월요일 휴관

2025. 2. 6 Thu - 2. 15 Sat



### NH농협은행,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영협약

NH농협은행은 10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2025년 경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농협은행 전 부문은 2025년 추진할 경영목표를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플랫폼·기업금융·WM 경쟁력 강화 등 디지털 선도은행 도약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강태영 은행장(가운데)과 각 부문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 BAT로스만스-대한사회복지회, 소외계층 지원 강화

BAT로스만스가 대한사회복지회와 10년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BAT로스만스는 올해 사업 수행을 위한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하며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오른쪽)와 강대성 대한사회복지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AT로스만스



### 광동제약, 다화용컵 생활화 등 '친환경 캠페인' 전개

광동제약은 임직원들과 함께 '사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친환경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내 다화용컵 사용 활성화 및 생활화에 중점을 뒀다. 친환경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동제약

### 넥슨, 'NDC 25' 발표자 모집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넥슨은 올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판교 넥슨 사옥과 인근에서 열리는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 25'의 발표자 모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발표자 모집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DC)'는 지난 2007년에 시작된 국내 대표 게임산업 지식 공유 콘퍼런스로 올해 넥슨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게임산업의 상생 가능성을 모색하고 신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NDC 25를 2019년 이후 6년 만에 공개 오프라인 콘퍼런스로 전환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정관장-시몬스

####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

정관장이 봄을 앞두고 시몬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내 마음 봄을 기다림' 프로모션을 3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학 등 새출발의 시기에 맞춰 프로모션을 펼쳐 긴장 완화와 안정적인 일상의 힘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기:다림 침향'의 '침향환', '침향액', '평정세트', '평심환 SABAH'의 가격혜택과 '시몬스' 제품의 3% 추가할인 등을 증명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김기문 회장, 두바이 商議 방문... 中企 교류협력 모색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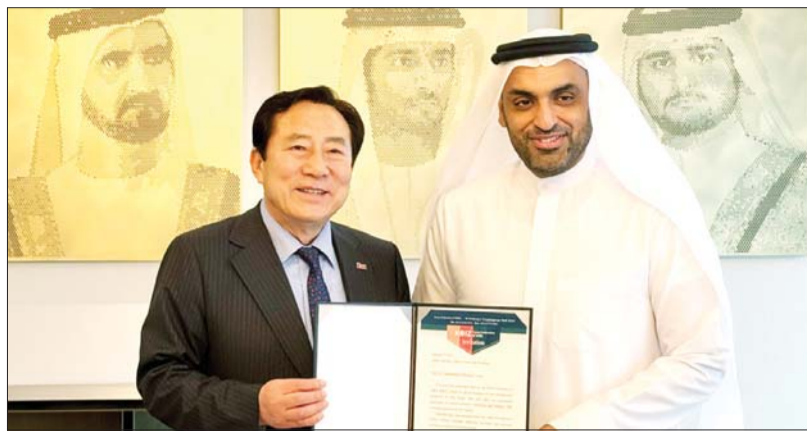
### 김 회장, 루타 상의 CEO 간담회 "협력투자 등 상호 협력분야 확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중소기업이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모하마드 알리 라쉬드 루타(Mohamad Ali Rashed Lootah) 두바이 상의 CEO와 간담을 갖고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두바이 상의는 한·UAE간 중소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했다.

지난해 한국 중소기업의 UAE 수출은 19억8000만 달러로 전년의 16억5000만 달러 대비 약 20% 증가했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10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모하마드 알리 라쉬드 루타 CEO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다. 특히 두바이는 전체기업의 98.4%가 중소기업으로 이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루타 두바이 상의 CEO는 "두바이는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 다양

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화장품, 식품, 헬스케어, 제약, 스마트팜 등 분야를 중심으로 두바이 투자사절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할테니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

이블을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한국과 UAE가 단순 수출입보다는 합작투자 등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두바이 상의에서 헬스케어, 제약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제안해주면 한국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매칭해 5월이나 9월께 한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 개최하자"며 초청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와 두바이 상의는 2033년까지 '세계 3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두바이의 투자환경 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대한항공, 에어라인레이팅스 '올해의 항공사' 수상

### B787 도입 등 기단 현대화 주요 "모든 클래스에서 탁월한 서비스"

대한항공은 호주 항공·여행 전문매체 '에어라인레이팅스'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사'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톱 25' 부문에서는 각각 8위에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라인레이팅스 올해의 항공사 2위에 오른 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 정상에 차지했다. 올해의 항공사 상을 받은

것은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에어라인레이팅스는 전 세계 350여 개 항공사의 안전 등급, 승객 리뷰, 항공기 기령, 수익성, 좌석 클래스별 평가, 중대 사건·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좌석 간격이 다른 항공사보다 넓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보잉 B787-10 차세대 항공기에서 좌석 등반이 각도를 최대 120도까지 벌리고, 모니터 크기와 해상도를 향상한 점도 호평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B787-10과 에어버스 A350-900 등 중대형 항공기를 잇달아 도입해 운항 안전성을 끌어올린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론 피터슨 에어라인레이팅스 최고경영자(CEO)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성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고, 차세대 항공기에 지속 투자하며 기단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프리미엄부터 이코노미 객실까지 모든 클래스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전선, 美 LA 산불 피해 복구 지원

### 10만달러 상당 전력케이블 기부 현지 인프라 복구사업 적극 협력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사진)이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제품과 기술을 지원한다.

호반그룹 대한전선은 미국 LA(로스앤젤리스) 산불로 인해 손실된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10만달러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LA수도 전력국(LADWP)에 기부했다고 10일에 밝혔다.

LA수도전력국(LADWP)은 미



국 최대 규모의 공공 전력 기관으로, LA지역의 전력 수도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LADWP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기부 물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기부한 케이블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주요 전력 회사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 201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품질 및 기술 검증 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미국 내에서도 소수의 업체들만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다. 대한전선은 최근 5년 동안 미국 서부 지역에 만 약 1000억원 이상의 제품을 공급해 왔다.

대한전선은 전력 인프라 복구 사업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제품 공급 및 기술 검증을 완료한 만큼 전력 인프라 재건을 위한 긴급 물량에 즉시 대응하는 동시에, 현지 전력 회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홈플러스, '홈플러스 문화데이' 행사

### 미술쇼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 진행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문화데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소방관 아저씨의 코믹 미술쇼 ▲인형극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공룡이 살아있다! 신나는 공룡 매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문화센터 행사다. 이달 14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미술쇼와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 이벤트가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소방관 아저씨의 코믹 미술쇼 ▲인형극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공룡이 살아있다! 신나는 공룡 매

직소 등 콘텐츠를 진행한다.

가성비 높은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액자, 손거울, 키링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부터 레고 조립, 슬라이드 만들기 등 콘텐츠를 로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재료비 100% 무료' 쿠키 클래스도 진행한다. 캐릭터를 활용한 초밥아트, 마들렌, 주먹밥, 쿠키 만들기 등 다채로운 쿠키 콘텐츠가 마련됐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 인사

- ◆한국예탁결제원 ◇부장 △증권감독부 부장 김정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조성국 △IT서비스1부 부장 손영일 ◇팀장 △경영전략부 ESG경영팀 팀장 송병도 △인사부 노사협력팀 팀장 이황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조호래 △혁신금융실 토론회준비팀 팀장 윤원종 △IT기획부 AI·디지털혁신팀 팀장 황진광 △차세대추진1실 선임전산역(경영지원시스템) 신명진 △차세대추진1실 선임조사역(사업총괄) 박활 △차세대추진2실 선임조사역(차세대2단계개발) 박종철
- ◆데일리안 ◇편집국 △산업부장 겸 산업 및 ICT융합부 에디터(부국장) 지봉철 △금융부장(부국장) 박관중 △증권부장(부국장) 양창욱 △건설부동산부장 이홍석 △문화부장 겸 문화스포츠부 에디터 유명준 △사회부장 김인희 △ICT융합부장 박영국 △생활유통부장 최승근 △스포츠부장 김태훈 △뉴미디어센터장(부국장) 홍준선 △영상미디어부장 김훈찬
- ◆시사캐스트 ◇편집국 △경제부장 송현아
- ◆광주일보 ◇편집국 △논설실장 장필수 △디지털본부장 채희중

### 부음

- ▲최재희씨 별세, 권호상(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수석위원)·호범(서울대학교치의대학원 교수)씨 모친상, 임미영(한국부동산원 춘천지사 과장)·이신원(메이치과의원 원장)씨 시모상=10일, 국립대전현충원, 발인 12일. 042-718-7114
- ▲유귀환씨 별세, 박종현(한국기자협회 회장·세계일보 국장)씨 장인상=10일 오전 1시30분 국립중앙의료원 302호, 발인 12일. 02-2260-7147
- ▲박동주씨 별세, 박민영(인천국제공항 경찰단 치안정보안보과 정보계장)씨 부친상=10일,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일 오전 7시30분. 062-365-4004
- ▲이희규씨 별세, 정석영(전 총주교교장)·정기영(전 민주당 충주시지구당 위원장)·정상연(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정장신·정정신씨 모친상=10일 오전, 충북 충주의료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2일. 043-871-0444

©Toytron, Sunwoo&Company All rights reserved.



내동생은 천하무적

뮤지컬

반짝반짝

# 달님이

2025.02.07(금) ~ 03.02(일) 서울 상상나라극장

주최 | 이지기획 SUNWOO & COMPANY

제작 | BLUE MON STUDIOS 주식회사 지킴이

홍보마케팅 | ETC COMPANY

예매 | 인터파크티켓 문의 | 02-764-9102

# AI, 우리시대의 소크라테스 될 수 있을까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세상에 이렇게 학습이 뜨거웠던 시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요 며칠 사이에 장안의 화제였던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행적은 온통 학습에 불을 지폈다.

우선 딥시크 창업자 량원평의 학력이 관심사였다. 중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해야 할까. 중국 명문대 그룹 C9에 속하는 저장 대학에 수석 입학했음은 물론, 2010년에 벌써부터 'AI 감시 카메라의 지능형 추적 알고리즘 개선'이라는 석사 논문을 썼다. 이런 학력(學歷: 학교를 다닌 경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재능을 키워 선행대수, 편미분 그리고 확률 통계학에 뛰어난 학력(學力: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만든 게 딥시크의 출현 배경이었다.

량원평의 학력이 화제가 되는 건 딥시크의 거대언어모델(LLM)인 딥시크-V3와 추론모델인 딥시크-R1 때문이다. 인간과 똑같이 언어로 응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연 독보적인 오픈AI의 챗GPT 4o와 o1에 견주어 딥시크 인공지능이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IT 거인인 구글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니(Gemini)'를 선보일 때도 꿈쩍하지 않던 세상이 딥시크에는 생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나날이 똑똑해지는데 들이는 비용이 단연 눈에 띈다. 오픈AI가 수천억 원을 들여 GPT-4o를 교육시켰는데 딥시크는 그의 10%도 들지 않았다. 다음으로 AI로 세상을 빨아들일 것 같은 미국 패권의 위세에 중국의 한 벤처 창업기업이 일침을 놓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러한 성과를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딥시크의 학습능력에 있다. 딥시크는 숫자 정밀도를 최적화해 메모리를 75% 절감하고,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읽어들이 처리 속도를 2배로 높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능형 학습의 결과는 당연히 딥시크와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창업자 량원평의 학습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학습은 연습이나 경험으로 일어나는 행동의 지속적인 변화를 말한다. 량원평으로 치면 선행대수, 편미분, 그리

고 확률통계학에 대한 연습과 경험을 통해 복잡한 수학적 원리를 인공지능 구조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AI에게 학습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탐지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적화된 모델이나 규칙을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고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너의 영혼을 보살피라(care your souls)"고 말했다. 그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행동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질문을 통해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도록 유도했다.

현재적 AI는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철학적 통찰에 기반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지만, AI의 질문은 주어진 데이터와 프로그래밍된 패턴에 기반하여 생성된다. AI가 질문을 한다면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나 모델 개선을 위한 추가 정보 요구에서 주로 발생할 뿐이다. 혹시 미래의 AI가 창의적 사고를 갖게 된다면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현재적 AI는 소크라테스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철학적 통찰에 기반해 상대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지만, AI의 질문은 주어진 데이터와 프로그래밍된 패턴에 기반하여 생성된다. AI가 질문을 한다면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나 모델 개선을 위한 추가 정보 요구에서 주로 발생할 뿐이다. 혹시 미래의 AI가 창의적 사고를 갖게 된다면 스스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



김 주 형 (금융부)

당근과 채찍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과 처벌을 통합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에게 당근을 상으로 주고 동시에 채찍질을 가하는 데서 유래한 관용어다.

최근 정부는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 보장을 대폭 줄인 새 실손보험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1·2세대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부담률이 낮다. 특히 약관의 재가입 주기가 없어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평생 1·2세대를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출시를 앞

둔 5세대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높고 보장도 줄어들어 가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갈아타 유인이 적다.

금융당국은 1600만명에 달하는 1·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매입만으로 효과가 미미할 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가입자 이익 침해 최소화하면서 5세대로 전환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기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1·2세대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남용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재매입을 통한 5세대 전환 방침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강제전환'이라는 불만이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강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매입에는 합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제도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매입은 말 그대

로 쌍방이 서로 합의가 되어 이뤄지는 거래"라며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강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매입을 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단계"라며 "기본적으로 발표된 안은 유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하나까 아마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라는 당근책을 꺼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강제전환을 통해 억지로 당근을 먹인다고 해도 원치 않은 보상은 오히려 반발을 유발한다. 가입자들에게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이 줄어들어 불리한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채찍의 고통이 더 크다.

/gh471@metroseoul.co.kr

### 오늘의 운세 2월 11일 (음 1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48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60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2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4년생 금전거래는 차라리 주는 것이 좋다.
- 소** 3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 49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고맙다. 61년생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73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는데. 85년생 얼룩진 옷은 바람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 호랑이** 38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50년생 바쁘지만 하고 실속이 없다. 62년생 상대의 손실로 인해 나도 손실이나 도와라. 74년생 우물을 찾았는데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하다. 86년생 관청이나 큰 단체에서 수주가 들어온다.
- 토끼** 39년생 종신토록 양보해도 백 보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51년생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에 빠지지 말자. 63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맡으니 피곤. 75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가 필요. 87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 염** 40년생 아이디어로 이름을 얻는다. 52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상대를 비난하지 마라. 64년생 뒤늦은 도박으로 점안가경(漸入佳境).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8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 뱀** 41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53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안다고 했다. 65년생 부모님의 지갑도 생각해 줘라.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89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한다.
- 말** 42년생 재혼하려는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54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6년생 허망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 78년생 투자 약속은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할 것. 90년생 사돈과 뜻이 잘 맞아 이사가 기는데 수월.
- 양** 43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5년생 영업으로 꾸준한 이익이 온다. 67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건강에 신경. 79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자. 91년생 타인의 이성에 유혹됨을 벗어나야 할 터.
- 원숭이** 44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56년생 달리기만 하면 앞밖에 보이지 못한다. 68년생 지인에게 손익을 너무 따지지 마라. 8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허전하다. 92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일시에 해결.
- 닭** 45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57년생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날. 69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81년생 면접에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통과된다. 93년생 재난보험에 가입은 필수.
- 개** 46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초행길의 산행은 조심해야. 70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도 둘러보자. 82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94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하루이다.
- 돼지** 47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59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존중. 71년생 모아 번 비상금이 바닥이 난다. 83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95년생 외국에 간 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온다.



## 김상회의四季 역사는 흐른다

작금의 한국 사태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우리나라가, 초유의 계엄사태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례가 없는 우려를 일으켰다. 현 시국을 보는 국민은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다. 미국만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립뿐만 아니라 양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양분은 놀랄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보인다. 필자는 항상 역학적 견지에서 사건을 보게 된다. 우려되는 사태는 하지만 분명 대한민국의 체질과 이성을 발전하게 하는 약초 역할이 되리라 본다. 우리 민족은 남다른 기개를 지닌 나라이고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고 열매를 키워 낸 나라다. 다만 그 과정에 희생당하고 더 큰 어려움에 고생할 무수한 사람들이 걱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인월(戊寅月) 즉 음력 정월과 기묘월(己卯月)인 음력 2월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보니 추운 동토이긴 하나 극한을 이겨낸 뿌리여야 초목을 드리우고 굳건히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송하비결이나 정감록을 보면 극도의 혼란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성인이 나타나 대한민국의 군자의 나라로서 동방인목의 기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암시한 대목을 필자는 항상 강조하고 있다. 탄허 스님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흐름으로 가는 길목에는 순조롭기보다는 기폭제에 해당하는 큰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이다. 역사는 흐른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언서에 나오는 언급처럼 분명 세계사적으로도 후천갑자의 주역이 되는 국운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제는 혼란과 혼돈이다.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대가를 치른 뒤의 저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겨내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각각씩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2		8	5			9		3
	6							8
8		7	1			4		2
				4		8		1
			2		4			
7		4		8				
3		2			5	6		8
	5							3
6		1			8	7		9

1	8	5				6		4
	4				7	1	6	5
6	5			4				9
	2							
		2				4		
								4
2				8				5
4	1	8	7					3
9		1				7	8	2

6	7	8	9	5	1	2	9
7	8	9	1	8	6	9	7
8	1	9	6	7	2	8	1
9	6	8	2	8	9	7	1
9	7	1	8	2	9	8	6
1	2	8	6	7	2	9	8
2	8	9	1	8	6	8	9
7	8	9	2	6	8	9	1
8	9	6	1	8	9	8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0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1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대학부설연구소 세계적 수준 향상 '국가연구소' 10년간 1000억 지원

교육부·과기정통부서 재원 분담  
올해 4곳, 2027년까지 8곳 추가  
4월 말까지 신규과제 접수 진행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원을 분담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한 뒤 2027년까지 8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시설·장비 구축,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등을 대학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 ◆세계 최초·최고 수준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으로 대형·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임계규모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미

약한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가능한 융복합·대형 연구거점이 될 대학연구소를 육성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을 3가지 주안점에 초점을 뒀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로는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된다.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9월 사업 시작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10일 확정·공고했으며,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과거 국가 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착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경기도, 취약계층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49만 명 대상... 총 680억 투입  
개인별로 연간 14만원 씩 지원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약 680억 원을 투입하여 49만 939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4만 원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 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 되어 즉

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의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지역문화본부)는 지난해 신규 가맹점 1,951곳의 등록을 유치하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더욱 확대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약자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

/서울시

## 서울시 '약자동행 사업' 마포구 최우수상

양천·노원·송파 등 5개구에 우수상

서울시는 10일 오전 시청에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약자 동행 지원 사업 30개를 평가해 마포·양천·노원·동대문·송파·성동구의 6개 우수 사업에 상을 줬다.

마포구의 '함께하는 구강 건강 동행관리' 사업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마

포구는 서강 보건지소에 치과 진료실을 설치하고 취약계층에 구강 검진 및 치과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

또 ▲양천구의 '희망 플러스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노원구의 고립 은둔 청년 가상 회사 체험 '노스한 컴퍼니' ▲동대문구의 '장애인 친화 동행 미용실' ▲송파구의 '경계를 넘어 내일로 2.0' ▲성동구의 장애인 특화 '모두의 도서관'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hki1@

## 대학등록금 인상분 활용, 장학금 확대편성

교육부, 학생 학비부담 완화 일환  
저금리 학자금대출 지속적 확대

15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온 대학들이 올해 잇따라 인상을 결정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장학금 등 학생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대학을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대 편성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국

가장학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 100만명(8구간 이하)에서 150만명(9구간 이하)으로 확대된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기존 14만명에서 올해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지난해 대비 약 6000억원 증액된 5조4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2600억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확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 5%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 인상분보다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금리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9학기 연속 1.7%로 동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도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국가장학금과는 별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의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2월 11일 (화) 음력 : 1월 14일

수도권 날씨 -5 ~ -6℃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26 | 해질 / 18:07

지역별 날씨: 연천 -11/5, 동두천 -11/6, 가평 -11/5, 파주 -13/5, 서울 -5/6, 양평 -11/6, 인천 -3/5, 수원 -5/6, 용인 -5/6, 평택 -1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가자, 다른 중동국에 일부 줄 수도" /사진 뉴스  
▲머스크 "재무부에 접근금지 명령 내린 판사 탄핵해야"

▲이스라엘, 휴전 중 헤즈볼라 또 공습... "무기 밀수"  
▲창안차·동평차 경영통합 계획... "중국 1위 자동차사로"

▲일본 작년 경상흑자 280조원으로 '역대 최대'...엔화 약세 영향  
▲이라크 난민 569명 시리아 수용소에서 귀국...양국 송환계획 따라



이재현 CJ그룹회장  
현장경영 행보  
L1



Life

게임업계  
대규모 신작 예고  
L2



지난해 5월 충북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 공장에서 열린 공군사관학교 생도 초청 특별 행사에서 생도들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일곱 번째), 공송배 공군사관학교장(앞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첨단 바이오테크 기반 안전·경제 수호... 지속가능 미래 '활짝'



메디톡스



국내 최초 보툴리눔 독신 제제 개발  
軍, 학교 등 미래세대에 연구 성과 공유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활동 투자도

글로벌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가 연구개발에 기반한 전문 역량을 성장동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에서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처음 선보이며 'K보톡스' 경쟁력을 높여 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 독자적인 원천기술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신'을 개발했다. 이후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독신 제제 '이노톡스', 150kDa의 유효 성분만 정제된 비동물성 보툴리눔 독신 제제 '코어톡스'를 잇따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또 보툴리눔 독신 제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도 개발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 ◆ 지역 사회 미래 세대에 기여

전문 기술과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메디톡스는 국내외에서 국가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상반기 충북 오송에 위치한 3공장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초청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과 최첨단 생산 시설을 소개한 바 있다.

해당 행사를 통해 메디톡스는 대한민국 영공 수호와 국민 안전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바이오 산업 기술 수호에도 앞장서

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메디톡스가 생산 및 관리 중인 보툴리눔 균주를 포함한 보툴리눔 독소 생산 기술은 정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받았다. 이 기술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호국 안보에 대한 의지와 경각심을 요구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역 사회 청소년들과 바이오·제약 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메디톡스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과 협력해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부터 연 2회 열렸고 현재까지 총 120여 명의 중·고등 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광고 R&D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멘토링에 나서 참여 학생들과 공감대를 이루며, 연구원 직무, 필수 역량 등 학생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메디톡스는 충북 오송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체험학습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6곳의 원아들에게 오송 2공장에 조성한 연못과 온실정원 등을 이용하는 생태 체험과 놀이 활동을 제공했다.

### ◆ 지구촌 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메디톡스는 지난 2018년 전 세계 뇌성마비 환자의 침족기형 재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저명 인사 등 총 2022명으로 구성된 '팀2022'를 결성했다.

침족기형은 근육의 경련성 마비로 인해 발가락으로 걷게 되는 이상 보행으로, 보툴리눔 독신 제제를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해당 질환의 주요 원인은 성인의 경우 뇌졸중, 소아의 경우 뇌성마비가 꼽히며 침족기형 완치를 위한 치료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후원 국가로 몽골을 선정해

현재까지 몽골 소아 뇌성마비 환우 1000여 명의 치료에 힘을 보탰다.

국내에서는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침족기형 환자들의 재활 치료를 위한 무료 시술 행사에 보툴리눔 독신 제제 250바이알을 후원하기도 했다.

### ◆ 기업 미래 경쟁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메디톡스는 지난 2024년 기준, 한국ESG 기준원의 ESG평가에서 통합 B+등급을 획득했다. 환경과 사회 부문에서 각각 B+등급, 지배구조 부문에서 B등급 확보했다.

### 뇌성마비 환자 침족기형 재활 지원 BSI 등 글로벌 표준화기구 인증 "ESG 경영 기반 기업 경쟁력 강화"

특히 메디톡스는 환경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 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와 에너지 절감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우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등 비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오송 2공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도 생산해 활용하고 있다.

수질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폐수 성분을 분석해 법적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폐수 중화 설비를 갖춰 자체적으로 물리화학적 처리를 먼저

거친 후, 산업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등 안전하게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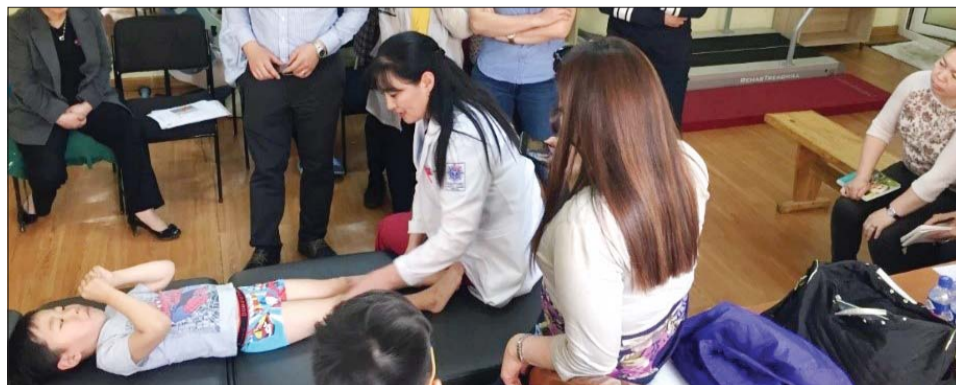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대기 오염 물질도 관리한다. 기존 저녹스 보일러를 초저녹스 보일러로 일부 교체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시설이다. 메디톡스는 향후 보일러의 수명을 고려하면서 초저녹스 보일러를 지속 도입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제조용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삼투압(RO) 농축수로 생태 연못을 조성하고 국가보호종에 속하는 어류인 갈겨니 30마리, 꺾지 30마리를 방생하고 있다.

이밖에 메디톡스는 한국경영인증을 비롯한 BSI 코리아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그 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 등 총 5개 인증을 획득했다.

메디톡스 측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기업 신뢰도를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ESG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디톡스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팀2022'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메디톡스

## 메트로 한줄뉴스

- ▲ '손흥민 침묵' 토트넘, 아스톤빌라에 패배... F A컵 16강 진출 실패
- ▲ 고진영, 4번째 우승 놓쳤다... LPGA 파운더스 컵 준우승

- ▲ 김혜성, 기대되는 MLB 신인 23위... '최고 유망주' 사사키는 3위
- ▲ 제63회 진해군항제 3월28일~4월6일 개최... 콘텐츠 중심 정체성 강화



- ▲ 대구 불광사 지장시왕도, 유형문화유산 신규 지정
- ▲ 정월대보름 창경궁엔 2개의 달이 뜬다... 보름달 모형 설치

/사진 뉴스